

것에 철저를 기하여 백미식의 폐지, 7분도미 이하의 상용, 혼식·대용식의 장려에 노력한 결과, 연맹원의 자각과 미곡판매업자의 협력에 의해 절미, 절곡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철저히 권장되고 있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1) 중심인물의 양성

우리 반도에서는 일본과 달리 아직 일반 민중의 지식 정도가 낮기 때문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취지를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층 소위 중심인물(특히 부인의 지도를 담당할 중심인물이 더욱 필요함을 통감함)의 각성을 촉구하여 술선수범과 부단한 노력 끝에 일반 민중의 지도를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① 지도자 강습회의 개최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강습회를 널리 개최하여 자기훈련과 상호훈련을 실시하여 강건한 정신력과 견인불발의 정의관을 스스로 체득시켜 민중지도에 대한 신념을 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연맹은 연 1회, 부(府)·군(郡)·도(島)연맹은 연 2회 이상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하고, 읍·면연맹은 이들 수강자를 정·동·리·부락연맹의 중심인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접 일반 민중을 지도하는 읍·면 직원에게 본 운동의 취지를 투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성지 참배의 실시

진정으로 인식을 깊이 하려면 어느 정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연맹에서는 매년 정·동·리·부락연맹의 중심인물 약간 명을 선발하여 일본의 성지를 참배시키고 이를 통해 귀중한 체험과 신념을 체득시켜 각 연맹원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일반 민중에게 깊은 감격으로 황국신민으로서의 굳은 결심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맹강령 및 실천요목을 중심으로 한 교서 「신민의 길」(가칭)의 작성 배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맹원이 빠짐없이 연

맹의 강령에 철저히 하고 실천요목을 반복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황국 정신의 파악 현양과 황국신민화의 급속한 실현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익숙해질 아름다운 습속 중에서 강령을 신조로 영원히 살아나갈 반도 민중의 신민도(臣民道)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연맹강령 및 실천요목을 중심으로 쉽고 누구에게도 친숙하게,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의 성서나 불교의 교본과 같은 교서 『신민의 길』을 만들어 각 가정에서 밤낮으로 암기시켜 연맹원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각자의 신앙에까지 도달하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도록 도모해야 합니다.

(3) 국민정신총동원과(가칭)의 설치

본 건에 관해서는 4월에 개최된 도지사회의에서도 제창되었다고 어렵듯이 들은 바 있습니다만,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반도 통치의 강력한 외곽기관으로 운동을 개시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진흥운동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양자의 표리일체 활동에 의해 실적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성과를 거두어 반도 총동원 태세의 강화에 절대적으로 공헌했음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양자는 설립 당초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의 단체였습니다. 하나는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도모하여 거국일치의 태세를 확고히 쌓아나갈 목적의 정신운동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 기초 위에 서서 농산어촌의 경제 개생을 도모하여 총량한 황국신민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물심일여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양자가 결국 추구하는 바는 완전히 동일하여 불가분의 관계였음은 군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므로 양자를 통합하여 조직을 동일 단위로 만드는 동시에 지도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필수적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독부 및 각 도에 총동원과를 설치하여 기구의 강화, 확충을 도모하고 양 운동을 기획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또 처음부터 목적이 같은 기존의 각종 단체운동도 여기로 정리, 통합하여 반도 통치의 강력한 지도기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4) 전시생활의 철저화

민중 각자가 스스로 국책에 협력하는 길은 각자가 진정으로 시국의 진상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도 두말할 필요 없이 일중전쟁에 대처하는 거국적 국민운동으로 소위 ‘거국일치’와 ‘진충보국’의 대정신으로 현재 시국에 대처하고,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걸리건 ‘전인지구’로 모든 곤란을 넘어 소기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국민의 결의를 견고히 하는 데에 있습니다. 도 또는 부·군·도

연맹은 생활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들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특히 도시에서의 각종 연맹의 운동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은진산업단체에 정동정신의 보급을 철저히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략)

〈출전 : 金信錫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7) 참의 김기홍(金川基鴻)

1. 운동의 실황

(1) 실정에 반하는 과대 보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종래 지도 당국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미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면 아직도 결함과 철저히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신 운동은 형식의 정비에만 몰두하지 않고 그 근본정신의 함양, 부식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실상은 약간 이에 반한 측면이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논하면, 지도 당국은 사변 발발 이후 갑자기 사무가 몹시 분주한 결과 본 운동에도 자연히 철저히 못하여 단순히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도자 자신이 출선하여 일반 민중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성의가 없고, 다만 상사에게 사실과 다른 자화자찬적인 문구를 사용한 과대 보고를 일삼아 오로지 자신의 책임만을 호도하기에 급급합니다. 따라서 일반민 중에 진정으로 본 운동의 근본정신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열의와 성의를 가진 자가 적고 대부분 관리의 면전에서 당면한 지탄만을 피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자주 신문지상에서 사실과 반하는 본 운동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새삼 지방 관청의 대담한 선전에 그저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현재 지방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실제적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일견 흑평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을 여실히 묘사하여 본 운동의 혁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지극한 정성입니다.

2. 향후의 강화철폐책

(1) 연맹기구의 개조

향후 본 운동의 강화, 철폐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정동운동 기구를 개선하여 연맹의 사업을 관청의 손으로부터 분리하고 연맹 독자의 입장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관청은 지도, 감독의 임무를 담당하고 연맹의 경비는 국비나 지방비로 보조해야 합니다. 또 연맹의 임직원은 종래와 같이 관공리 출신, 기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에 편중하지 않고 평소 민중 지도에 경험과 열성을 지닌 민간의 인재를 등용하여 직업적 지도자로부터 실제 지도자로 전환하는 실행제일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략)

〈출전 : 金川基鴻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8) 참의 이경식(李敬植)

(상략)

1. 운동의 실황

(1) 국민적 협동정신의 결여

정동 실시 이후 각 방면 모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원래 조선 민중에게는 국민적 협동정신이 결여되어 단지 일가, 일족, 일당, 일파의 협력에만 편재하여 현 사회 정세상 모든 일이 일가, 일족, 일당, 일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의 수행에 저해하는 바가 막대합니다.

이는 실로 국가 성립의 기초가 당세(黨勢)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그 교양은 오로지 한 방면에만 편재되고 사회적, 국가적 사업 시설에 몸을 바치려는 관념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생일 또는 조상의 제사의 경우에 일가, 일족의 친척이 모여 일치 협력하여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지만, 아직 부락이나 군의 주민이 서로 모여 즐기는 기관이 없고 협력 친목에 도움이 되는 행사도 없습니다. 지금 각 군에 설치된 사직과 같은 것도 단순히 관청이 실시하는 형식적 제사에 머물러 군민의 자발적 환희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또 문묘와 같은 것도 유생파의 기관에 머물러 다른 일반 민중에게 미

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정으로는 국민정신, 일본적 성격에 대해 향후 대대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1) 협동사업, 단체적 행사의 장려

이것을 위한 방법으로는 예전의 사직 혹은 문묘의 터, 기타 적당한 장소에 군민이 협동하여 자재와 노동력을 제공하여 신사를 창립함으로써 자력으로 만든 건조물, 신성한 영역임을 자각시키고, 국가로부터의 보조 지도를 받아 봄, 가을 1회 혹은 2회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이 날 군민은 일을 쉬고 신사에 참배한 다음 주민들이 좋아하는 적당한 행사를 실시하여 함께 즐기면서 협동 유희, 기타 흥겨운 영업을 허가하여 구경하게 합니다. 각 부락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통해 협동사업, 단체행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협동 정신의 함양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 위생에 주의하여 동네나 부락에 유행병이 나돌았을 때는 그 동네의 수치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악병의 방지에 노력하고 위생을 중시하는 풍조를 함양함과 동시에 강건한 신체가 자랑이라는 풍습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공사업에 대한 자각의 향상

협동사업을 진정으로 자기 사업으로 삼고 또 이것이 곧 국가봉공, 공중사업이라는 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교량, 선착장과 같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은 부근 주민이 항상 주의하여 봄, 가을 농한기에 수리하는 것이 의무임을 자각시켜서 완비하게 함으로써 이를 자랑으로 여기는 풍조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방의 산림을 공동 보호하여 무성하게 미화된 풍경을 보고 서로 기쁨을 느끼며 즐기는 풍조를 함양하고 벌채의 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3) 협동작업 체제의 훈련

공동 작업에 대한 단체적 체제를 배우기 위해서는 봄, 가을 농한기에 가장 필요한 저수지의 뽕리자가 서로 모여 수리면적에 따라 자금과 노동력을 내서 제언, 수로, 수원지 등을 수리하고, 도로와 교량은 동민이 협조하여 수선하게 해야 합니다. 또 벌초, 시비 등도 모두 공동 작업으로 실시하여 서로 태만을 경계하고 농사의 여가에는 부업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작업은 동민 각자의 작업을 분담하고 전력을 다하여 성

과를 경쟁하는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공동 작업의 효과를 자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태만한 자를 경계하여 황무지는 누구의 소유에도 불구하고 경작지가 부족한 자에게 개간 경작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휴업자가 땅이 없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였지만 황폐한 토지 등은 강제적으로 이용의 길을 열고 또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감시기관(암행어사)의 설치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町)·촌 내의 유지나 그 임무를 맡은 면장, 이장이 이를 지도하는데, 유력자 중에는 사업을 명분으로 주민을 마음대로 사역시키거나 관유·사유의 산림 등을 남벌하기 때문에 별도로 감시기관을 설치하여 비밀리에 그 실정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감찰자는 과거 조선에 있던 암행어사와 같이, 동민과 관계없는 자를 몰래 임명하여 비밀리에 여행하여 실정을 시찰하고 보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략)

〈출전 : 李敬植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9) 참의 유태설(劉泰高)

(상략)

1. 운동의 실황

일중전쟁 발발 이후 관민이 협력하여 내선일체, 거국일치,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 달성을 목적으로 한 본 운동은 1938년 7월 7일 조선연맹의 결성을 시작으로, 각 도·부·군·면·읍·정·동·리·부락의 각 연맹 및 각종 연맹이 연이어 결성되었습니다. 1939년 말 현재 연맹 수 78,752개, 애국반 수 370,204개, 기타 반원 수는 실로 5,151,823명에 달하는 등 조직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운동 상황은 올해 3월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이라는 책자와 조선연맹이 발행한 「총동원」이라는 잡지에 상세히 게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함남에서의 개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맹 결성의 상황

1938년 7월 7일 일중전쟁 1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우선 함흥과 원산 두 곳의 부(府)연맹 결성을 시작으로 각 군연맹의 결성이 연이어져 8월 28일 함경남도연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맹조직대강에 따라 읍·면연맹, 동·리·부락연맹을 결성하고 각각 애국반을 편성하여 연맹망을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총수 130개 읍·면에 130연맹, 정·동·리 2,979개소에 3,648연맹이 있고, 그 밖의 각종 연맹 1,261개소가 있으며 총 애국반은 23,498개소, 애국반원은 329,910명에 이릅니다.

(2) 지도강화의 상황

일본 정신을 체득시켜 내선일체를 촉진하고 거국일치 시난극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도망의 강화가 긴요합니다.

① 연맹대회의 개최

일중전쟁 기념일, 기타 적당한 일시를 택해 때때로 도연맹대회를 개최하고 시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각오로 운동요향을 실천합니다.

② 지도위원의 설치

정동연맹의 성과는 주로 실천망인 정·동·리·부락연맹 및 애국반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많으므로 도연맹 소속 정·동·리·부락연맹과 애국반원에게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강령 및 동 실천요목, 기타 본 운동에 관한 사항의 주지를 도모하고 그 실천을 지도하기 위해 모든 정·동·리·부락의 3개 연맹에 1명의 지도위원을 두어 애국반원을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타합회를 열고 지도방법을 연구하여 본 운동의 강화에 힘씁니다.

③ 연맹추진대의 창설

본 운동의 중견인물의 훈련(단기농민훈련, 중견청년강습회 등)을 위해 활동사진, 종이연극의 순회회람, 인쇄물 배포(지방진흥시보) 등을 통해 철저히 지도합니다.

④ 조장시설

1939년에 각 부·군에 교화주사, 부인촉탁을 각각 1명씩 두었고 더욱이 본 연도에는 각 부·군에 속(屬) 및 고원(雇員)을 각각 1명씩 증원하여 상당히 많은 경비를 계상하여

오로지 본 운동의 강화철저에 힘씁니다.

(2) 일반 활동 상황

전 도민에게 운동요강을 일상생활에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각종 주간의 실시, 근로보국운동, 애국일(홍아봉공일)의 실시, 식량대책(식량의 절약, 죽식의 장려, 꼭꼭 씹기, 대용식과 혼식의 이행, 식용작물의 조기재배 등), 육군특별지원병제도 및 씨 제도의 취지 주지 철저, 각종 순회강연, 좌담회 등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일반 실시 상황

원래 정동운동은 일조일석에 만전의 성가를 거두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특히 본 운동은 개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반도 민중은 시국을 인식하고 내선일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는 예상 이상의 수에 달했고, 군수자재의 공출, 저축의 장려 등과 관련한 많은 미담이 속출하였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더라도 확실히 본 운동에 힘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1939년의 대한해로 인한 미증유의 흉작은 반도 민중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과거였다면 대기근이 찾아와 늙은이들의 말대로 기사, 경오년 흉작의 참화와 비교하면 아사자가 속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증유의 흉작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당국의 일사불란한 선정과 일본에서 솔선 실행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성과 때문입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정동 조선연맹의 1940년도 운동방침에 의거한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건국의 대정신의 양양 천명
- ② 내선일체 완성의 촉진
- ③ 전시생활의 철저
- ④ 모든 국가적 시설 실행의 추진
- ⑤ 도시에서의 운동 강화
- ⑥ 운동 능력의 증진
- ⑦ 국민총훈련으로의 유도

⑧ 기타

이상의 8대 항목을 내걸고 각 항목을 면밀하게 세목으로 분류하여 상세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잘 선도하여 민중이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본 운동 완수의 길입니다. 하지만 애국반장, 기타 제1선 지도원이 조선연맹의 계획정신에 따라 지도에 만전을 기해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일반 민중 모두가 이를 잘 체득하여 실천할 수 있는지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종래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운동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방면에서 일부 위험분자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매점 매석 등으로 폭리를 취한 법령위반자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도시 민중조차 운동정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의 내외정세를 감안하여 본 운동의 강화 철저가 가장 통절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그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연맹 및 지방연맹에 대한 국비보조의 증액

내선일체로 국운을 부익하고 황도를 선양하여 흥아위업에 매진하는 본 운동은 실로 국민적 최대사업으로 소요경비가 막대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국반장은 영웅이 아니고 지도원 또한 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비가 필요하지 않은 운동은 실적이 적고 대중의 반응 또한 적습니다. 더구나 반도 민중은 대부분 무학자이고 연맹은 실로 국민교육기관으로서 그 대상자는 2,400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조선 내의 학생 수 134만 명에 요하는 막대한 교육비와 비교해 볼 때 2,400만을 대상으로 한 본 운동은 경비 없이는 모처럼의 좋은 안도 구호로 끝나서 실패 없는 공포탄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물심양면의 원활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 모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총독부 예산에서 세출의 대부분은 물적 시설비가 차지하고 사회교육 방면은 겨우 사회교육과 관계의 비용에 불과합니다. 경비 면에서 이미 물적 부문에 편중된 상황이라면 국민정신양양운동은 도저히 완벽을 기하기 어렵습니다. 총독부 1939년도 연맹보조비는 조선연맹에 156,110원, 도·부·군연맹에 89,890원 합계 246,000원으로 언뜻 보면 다액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광범함과, 한편 연맹 자체에 일정한 세입이 없음을 고려하면 실로 미약할 따름입니다. 이를 2,400만 민중에게 할당한다면 1인당 평균 1전이 약간 넘는 경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조선연맹의 본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한 예를 들면 지도원을 교양시킬 경우 학교 교육에서의 사범교육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경비로 적어도 민중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교양 훈련

을 받게 해야 합니다. 또 일본어의 보급계획도 각 부·읍·면에 적어도 강습소 1곳을 연맹 직영으로 설치하여 보급에 힘써 민중이 연맹의 존재에 큰 기대와 신뢰를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맹의 법인화

모든 단체는 인격이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 없을 때는 그 기초를 견고히 다지기 어렵습니다. 정동연맹은 총독정치를 보좌하는 국민 지도계몽의 실천기관으로서의 강력한 단체로 영속할 필요가 있는 이상 적어도 조선연맹은 강대한 법인조직이 되어 상당한 세입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3) 총독부에 사회국 설치

현재 행정기구는 물적 편중의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물적 개발기구로는 식산국과 농업국이 있고 내무와 체신 양 국의 사무도 대부분 물적 방면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정신 방면의 기구로는 불과 학무국의 사회교육과 1과가 있을 뿐입니다. 생각건대 정신 방면의 사무는 물적 방면보다 오히려 복잡다단하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강력한 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독부 사회교육과를 사회국으로 승격시켜 본 운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실시에 권위를 부여하여 강화철저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정동연맹이 발표한 1940년도의 운동방침의 강화, 철저를 통해 성과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략)

〈출전 : 劉泰尙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20) 참의 김상회(金尙會)

1. 운동의 실황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거국일치, 견인지구, 진충보국, 내선일체, 반도 동포의 황국신민화를 목표로 조선연맹, 도연맹, 부·군연맹, 각종 단체연맹, 읍·면연맹, 정·동·부락연맹, 애국만을 조직체로 합니다. 1939년 12월말 현재 애국

만은 334,495개, 반원은 4,054,720명에 달해 내용과 형식 모두 발전하였습니다. 또 모든 각 도에서 강화, 철저를 도모하고 있는 당사자의 열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일반 정동운동을 유심히 바라보면 운동의 정신을 철저히 이해하고 나아가 이에 협력하려는 열의가 비교적 적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애국반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거의 무관심한 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유감으로 기구 면에서도, 운동방법 면에서도 한층 더 궁리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1) 명칭에 대한 고찰

국민정신총동원이라는 현재 명칭에 대해 ‘무언가 확실하지 않다’ ‘확실히 머리에 들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안팎에 많습니다. 특히 문자에 집착한 측면이 강해 비교적 근대문화에 뒤떨어져 신어, 신술어를 음미하는 데 미숙한 반도 민중 사이에 이러한 경향이 농후합니다. 명칭 그 자체가 곧바로 시국을 인식시켜 국민정신의 분발을 촉구하는 데 적당한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험 삼아 다음 3개의 명칭을 제시합니다.

① 조선순국회

영국인에게는 영국인, 독일인에게는 독일인, 일본인에게는 일본인 독특한 각 국민정신이 있습니다. 일본인의 독특한 국민정신이란 만방에 비할 데 없는 국체의 존엄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 국체를 갖는 일본 국민이라는 데 없는 긍지와 유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국체옹호, 국위발양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점을 드러내는 명칭입니다.

② 조선봉공회

일단 위급한 경우에는 의용을 바치는 것이 일본 국민으로서의 긍지이자 그 특색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러한 긍지와 특색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③ 조선보국회

진충보국은 일본 정신의 진수입니다. 오늘날 황국의 융성을 가져온 연원인 시난극복, 성업완수를 위해 이 미덕과 본질을 한층 더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기치를 내건 명칭입니다.

(2) 인적 요소의 확충 강화

조선연맹에 부총재 2명을 두되 그 중 1명을 민간인으로부터 선출하며 1명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겸임시켜야 합니다. 이는 일본의 신기구를 모방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불문하고 기구가 아무리 정비되고 계획이 아무리 선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적 요소가 결여된다면 필경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조선연맹의 인적 요소에 결코 결함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종 기획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기구상으로 준비하는 것은 본 운동의 성질상 가장 필요하고, 위용을 정비하는 데에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운동의 강화, 철저를 도모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라 믿습니다.

(3) 공리의 확립

어떤 운동이나 시설을 불문하고 일정불변의 공리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행동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건전한 발달과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본 운동 개시 이후 당국의 지도와 당사자의 열심 노력으로 착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복잡한 내외의 정세로 인해 본 운동의 전도 또한 요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시적인 사정이나 당사자의 교체 등으로 방침을 바꾸어 운동의 근간에 동요를 가져오는 일이 절대 없도록 확고부동, 일관불변의 공리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행일여의 본의 철저

본 운동은 물론 어디까지나 정신운동입니다. 하지만 실행이 수반되지 않은 운동은 필경 말로만 부르짖는 운동으로 운동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일본 정신의 양양은 이를 실생활에 나타냄으로써 비로소 이를 도모해야 합니다. 시국 인식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파악되는 것입니다. 백 개의 이론보다는 하나의 실행을 존중하고 만 가지 선전보다는 하나의 실천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일본 정신의 속성인 불언실행(不言實行)과 합치하는 바입니다.

(5) 중점주의의 실행

넓고 얕은 것보다 좁고 깊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종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각도에서 공작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의지와 열의에 경의를 표해야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고어처럼 조선의 민도에서 명령이 비가 오듯 내리퍼부어 응접할 겨를이

없는 것과 같은 실황이 과연 현명한 정책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중점주의를 취해 하나씩 하나씩 깊고 철저하게 파고들지 않으면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유종원(柳宗元)의 『종수곽탁타전(種樹郭橐駝傳)』과 같은 것은 참고할 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 전시경제 도덕과 전시생활 태세의 강화

미증유의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일반 경제인은 자칫하면 제1차 구주대전 시기의 호황기를 꿈꾸며 이윤 추구에만 치닫고, 일반 대중도 ‘물자와 부는 이윤을 낳는 것이다’는 평시 경제 현상에만 사로잡혀 모든 경제 운행도, 모든 부와 물자도 시난극복, 성업완수를 향해야 한다는 인식과 자각이 결여된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매점매석과 암거래 등 각종 우려할 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발본색원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하를 불문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해 일반생활의 실태는 성전이 이미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전도가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안한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시국을 인식하고 국민정신을 지닌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멸사봉공은 일본 정신의 특징으로 성업완성의 길은 오직 국가총력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반도의 경제계와 일반생활의 양태에 멸사봉공의 이념과 국가총력전 태세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간과하고 무슨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7) 공리주의의 박멸

가시를 잘라 없애지 않으면 훈란(薰蘭)이 무성하지 않고 나쁜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여물지 않습니다. 진여(眞如)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명(無明)을 불식하고 보리(菩提)를 구하기 위해서는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실로 일본 정신에 대한 무명이며 번뇌입니다. 이미 이것의 제거, 박멸에 유의하고 있으나 제가 보는 바로는 조선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보다 오히려 공리주의입니다. 조선은 구미문화의 침투가 비교적 얕아 자유주의의 폐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주의는 대가족제도를 자랑으로 삼는 사회이므로 급속히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미문화를 수입하면서 오로지 현란한 물질 방면에만 현혹되어 이를 추구한 결과 공리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 앞에는 정사선악을 묻지 않는 풍토가 상하를 불문하고 만연되어 창피함을 모릅니다. 파렴치 행위도 부도덕한 행위도 물적 성과만 거둘 수 있다면

선망과 갈채를 받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국민정신의 양양과 시국 인식의 철저를 도모한다는 것은 정말로 마왕에게 자비심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악경향을 제거하고 박멸하는 것이 정동운동을 철저히 강화하는 기본 공작입니다.

(8) 상의하달과 하정(下情)상달

거국일치, 국가총력의 발휘에는 상의하달, 하정상달이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거국일치, 국가총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실황을 보면 상의하달은 각종의 간행물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제법 신속하고 상세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정상달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거국일치, 국가총력을 발휘하는 데 각종 비상시 시설의 원만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조선연맹, 도연맹, 부·군연맹, 읍·면연맹, 부락연맹과 애국반과 같이 횡적 계통은 완비되었습니다. 오늘날 애국반은 부락연맹으로, 부락연맹은 읍·면연맹으로, 읍·면연맹은 부군연맹으로, 부군연맹은 도연맹으로 하정상달을 도모하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현명한 대책입니다.

(9) 종교단체의 적극적 활동

정신 방면의 활동을 영역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본 운동에 대한 협력이 몹시 부진한 현재의 상황은 실로 이해하기 어렵고 의외입니다. 그 원인을 잘 탐구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중대한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10) 농진운동과의 합작

실천 없는 정신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4)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으며, 양양된 정신이 실생활에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는 정신 그 자체의 권화(權化)에 의한 것과 어떤 행위 또는 사상(事象)을 매개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작은 노력으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또 매개의 선택에 따라서는 가장 쉽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농진운동은 원래 ‘열 손가락을 번갈아 치는 것보다 한 주먹으로 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원리에 의거하여 많은 사람의 힘을 집중한 자력갱생을 통해 농촌의 피폐를 타개하고 극복하려는 운동으로서 국민총력을 집중하여 시난을 극복하려는 본 운동과 완전히 같습니다. 또 개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기초 및 조직도 견고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본 운동의 매개

로 삼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다만 농진운동에 본 운동의 정신을 주입하여 단순히 농촌피폐의 극복을 위한 중력집중, 견인지구만이 아니라 시난극복, 성업완성을 위한 중력집중 견인지구를 자각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가장 쉽고도 명료하게 농촌 대중의 귓속에 들어갈 것이어서 현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농진운동 자체가 내외의 정세에 비취 점점 더 나쁜 성질을 더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하략)

〈출전 : 金尙會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21) 참의 현준호(玄俊鎬)

1. 운동의 실황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제국 부동의 국시로 따르고 황도(皇道) 정신의 현양과 내선일체의 구현화를 2대 목표로 삼습니다. 조선통치의 강력한 일익으로, 또 전시경제정책 수행상 중요한 협조기관으로서 정연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본 운동의 근간인 조직망은 거의 완성되어 지금은 각 계층을 통해 착착 국민총훈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참으로 경하할 만한 일로서, 병참기지에서의 반도민중이 가장 마음 든든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운동의 내용을 조용히 살펴볼 때 지금까지 주로 정신운동으로서의 추상적 효과만을 거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특히 도읍에서는 자칫하면 형식에 흐르는 듯한 경향조차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비상시 국민으로서의 각오와 인식을 높여 급박한 내외의 실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기구를 정리 및 개조하고, 심적 단일운동으로부터 물심일여의 통합적 실천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을 단행하지 않으면 시국 담당의 중책을 완수하기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이상과 같은 이유로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최근 연맹본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요강 이외에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기구의 강화, 확충과 실천운동의 강조

본 운동은 종래 그 본질적 사명에 따라 국민정신의 총 훈련에 주력한 결과,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집회에서도 먼저 공성을 요배하고 목도를 올린 다음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게 된 것은 믿음직할 뿐만 아니라 애국일의 장려, 출정군인 유가족에 대한 위문원조, 일상생활에서의 일본어 사용 등은 모두 정동운동의 협조 덕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각각으로 변하는 현재의 제반 사태는 순전한 정신적 동원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연맹강령이 내걸고 있는 바와 같이 '생활의 혁신' '경제정책에의 협력' '생업보국' 등 실천운동이 절실합니다. 이때야말로 과감히 연맹본부를 비롯해 지방연맹의 기구를 강화 및 확충하고, 지도방침의 방향 전환을 단행하여 본 운동과 일반 민중의 실제생활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중요물품 배급통제에 대한 협력기관의 설치

쇄국주의적 지방경제 블록을 속히 폐지하고 각 부·군·도연맹 내에 중요물품 배급통제 협력기관을 설치한 필요가 있습니다.

사변의 장기화에 따라 물자가 더욱더 결핍되자 각 기관 모두는 자기의 소속지역 내에 되도록 많은 물자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군과 도의 경계에는 일종의 관세장벽을 쌓고 각 도는 마치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듯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각지 모두 공정가격이 서로 달라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처에서 매점매석과 암거래 등의 악폐가 횡행하여 경제사범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각 부·현의 사례도 거의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뜻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비상시국책의 운영상 많은 지장을 초래시킬 뿐만 아니라, 이대로 나아간다면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활에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중요상품의 배급통제안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치적 협력을 추구하면 오늘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임은 물론, 투기행위를 억제하여 각종 부정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전시체제하에서 반도 경제력의 순조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본 운동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방경제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가장 유효적절한 방책으로 생각합니다. 단, 식량배급은 현재 부·군·도(島)를 단위로 하는 임시통제조합이 있지만 자출(資出)제도에 의한 일종의 특권적 영리조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폐해를 초래하여 그 존립의 의의를 몰각시키고 있는 실상이므로 이 조합을 속히 청산하여 본 안의 협력기관에 합류시키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 ① 본 기관은 연맹본부 통제하에서 경제경찰과 항상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합리적 배급을 협력 알선할 것.
- ② 알선품목을 미리 정하고 상인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소유 수량을 소속 부·군·도연맹 내의 본 기관에 보고하게 함과 동시에 정·리·동연맹으로부터의 소비 예상 수량의 신고를 감안해서 정확한 배급계획을 수립할 것.
- ③ 배급은 ‘일련표제’를 채용할 것. ‘일련표’란 표 그 자체의 전매를 엄금할 목적으로 상품별로 미리 정·리·동연맹에 배부하는 배급표로 배급 연월일, 수량 등을 정확하게, 게다가 일정기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 ④ 취급품의 가격은 전 조선이 균일하게 정해 수급상 필요한 운임과 제 비용은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여 본 기관이 부담할 것.
- ⑤ 상인의 물품출입장에는 필히 배급처인 정·리·동연맹의 이름을 기입하여 일정한 집계표를 소속 본 기관에 통보할 것.
- ⑥ 본 기관은 각 상인으로부터 받은 실제 배급표를 정리하여 배급 조절하는 데에 조금 도착오가 없도록 연맹본부 또는 도연맹과 항상 연락을 취할 것.

(3) 연맹직원 및 애국반장의 전임유급제

각 연맹직원은 거의 대부분 다사다망한 관공리 또는 민간유력자의 겸임 혹은 위촉에 의하기 때문에 본 운동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철저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처럼의 행사도 소리만 내고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도·부·군·도연맹 직원 및 애국반장은 연맹 교화의 핵심이며 제1선의 전사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의 생업까지 희생하면서 봉공의 지성을 다하는 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임 또는 위촉제의 상태인 채, 게다가 아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운동의 강화와 철저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코 유리한 계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전임유급제로 개정하여 일상생활에 일정한 보장을 주고 오직 한마음으로 본 운동에 정진시키는 것이 지금의 실정에 비추어 효과적 방책이라고 믿습니다.

(하략)

〈출전 : 玄俊鎬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22) 참의 김상형(金相亨)

1. 운동의 실황

지방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정 실시 이후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든 역대 총독의 통치방침에 따라 주로 관청의 일반 사회교화시설에 의한 국민정신작흥운동을 통해 그 소지를 배양하였습니다. 이어서 1932년 농산어촌의 자력갱생 및 물심 양 방면에 걸친 민중생활의 개혁을 위해 제창된 농산어촌진흥운동에 의해 일반 민중의 국민적 자주자립정신을 작흥하여 그 강화를 도모해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1937년 7월 노구교사건을 계기로 일중전쟁이 발발하고 거국일치, 국가총력발휘체제로 전환되어 동아신질서 건설의 대업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걸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제창하자 반도 또한 이에 호응하여 일본의 본 운동의 3대 목표, 즉 거국일치, 견인지구, 진흥보국 이외에 일시동인의 성지에 의거하여 내선일체의 철저한 구현 및 반도 동포의 급속한 황국신민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본 운동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연맹망의 결성, 정비를 통해 이를 중심으로 관민일여의 자주 운동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각종 단체의 운동도 존재했지만, 정신적 지도는 연맹의 지도 원리를 목표로 귀일하여 일원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농산어촌진흥운동과 표리일체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신적 기초 위에 경제갱생을 도모하고 총량한 황국신민의 육성과 국력의 증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의 실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연맹의 결성

1939년 7월 조선연맹이 결성되었고 이어서 도연맹이 조직되자, 군·면·부락에 걸쳐 각각 연맹조직대강에 기초하여 결성을 완료했습니다. 또 각 관공서, 학교에도 연맹을 조직하여 각각 상급연맹에 가맹시켜 연맹의 체계적 기구가 완비되었습니다.

종래 지방에 산재해 온 각종 단체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정비를 단행하여 연맹 및 농촌진흥회로 통합하고 일원화하였습니다. 또 이들 단체의 임원도 단일화를 도모해 사람이 달라짐으로 인해 생기는 상극 마찰을 피해 온 부락이 일체가 되어 원활 신속한 활동을 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 ① 각 연맹에 필요한 부(部)의 설치
- ② 연맹 사무소에 문패 설치
- ③ 연맹기(聯盟旗)의 정비

(2) 애국반의 결성

본 운동조직망 중 최말단의 기저적 실천기구로서 가장 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할 부락 연맹 및 각종 연맹의 밑에 대개 10호(각종 연맹은 10인 또는 수십 인)로 애국반을 구성하여 각 반에 각각 반장을 두고, 반원은 반장을 중심으로 반장은 이들 소속반원을 통솔하여 인보공조(隣保共助) 협심육력하여 모든 일에 걸쳐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애국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였습니다.

- ① 반장 및 반원의 주거에 문패 게시(반원의 문패에는 소괄 반장의 씨명을 숙지시켜 지도에 잘 따르게 하고 지도자의 지도상의 편리를 위해 반장의 씨명을 병기)
- ② 연맹사무소에 연맹강령, 실천요목, 연맹 및 반원 조직계통 일람도 게시
- ③ 애국반 활동 상황에 대한 기록 정비
- ④ 애국반 상회(常會) 개최
- ⑤ 애국반장 협의회 및 강습회 개최
- ⑥ 우량 애국반 선발 및 반장 또는 반원의 표창
- ⑦ 애국반장의 선진지 시찰
- ⑧ 애국반원에 대한 국민적 상식의 상시훈련

(3) 일반 실천사항

① 연맹강령 및 실천요목의 결정 실행

지방연맹의 강령은 조선연맹강령을 그대로 지방연맹의 강령으로 활용했지만, 실행요목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애국반을 통해 사태의 추이에 따라 특히 힘을 쏟아야 할 실천 강조사항을 선별하고 그 중에서 먼저 제1차 강조사항을 선택하여 상당한 기간 전력을 쏟아 전면적으로 그 실효를 거둔 다음, 제2차 강조사항으로 옮겨갔습니다. 당 지방의 일반적 제1차 강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사참배와 매일 아침 궁성요배
- 국기의 존중 계양
- 근로저축

의 3항으로 집중적 지도와 독려를 통해 상당히 양호한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② 애국일의 실시

1937년 9월 각 학교에서 애국일의 실시 개시 이후 점차 일반화되어 매월 1일을 지방부

락의 애국일로 정하고, 당일 부락연맹 주최하에 신사 또는 대마를 봉재한 연맹사무소 등에서 애국일 식을 거행하고 시국의 올바른 인식, 국체명징, 내선일체의 철저, 시난극복의 정신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황군의 무운장구 소원 및 전물장병 위령의 목도를 올립니다. 식이 끝나면 애국반별로 조직한 근로보국대의 총출동하에 반기(班旗) 및 대기(隊旗)를 맞추어 적당한 봉사 작업을 실시하고, 이밖에도 당일 전쟁터를 향하여 인고연마의 풍습을 다짐합니다. 또 명실공이 전시생활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요리점, 음식점 등의 휴업, 점포에서의 주류 판매정지를 종용하여 철저한 금주를 실시하는 등 의의 있는 실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현재는 1939년 8월 내각에서 매월 1일을 흥아봉공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에 순응하여 지방에서도 흥아봉공일을 애국일로 함)

③ 각종 주간행사의 실시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환발일(詔書渙發日)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정신작흥주간을 비롯해 수시로 거행되는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각종 주간행사의 실시에는 연맹이 주체가 되고 애국반의 자발적 활동을 촉구하여 각종 행사의 철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④ 근로봉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한 분야로 계획 실시된 근로보국대는 연맹애국반과 연계 관계를 갖고 매월 1일의 애국일(흥아봉공일) 및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한 각종 주간행사 등에 근로보국작업의 실시를 포함시키는 것 외에 지방의 공동작업, 한해구제사업, 기타에 걸쳐 참여합니다. 또 애국반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적 근로작업을 장려하고 증강, 철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정신의 진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⑤ 농산어촌진흥운동과의 연락 제휴

농산어촌진흥운동의 지도요령,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실천요목은 완전히 표리일체,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 양 운동의 수행에 연락,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국반의 상회일 및 애국일은 농촌진흥회 월례회일이고, 진흥회의 장 또는 간부를 연맹의 장 또는 애국반장으로 하는 등 합리화를 도모하여 민중의 조직적 훈련을 통해 2대 운동의 원활한 진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⑥ 지도자의 훈련

매년 봄, 가을 2회에 걸쳐 군·면연맹은 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상층연맹의 지도방침

을 시달하는 것 외에 단체 훈련 지도를 통해 본 운동의 기운을 더욱 고조시키고 강연회, 강담회 등도 개최하여 일반 지도자에게 본 운동 수행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그들의 사기를 고무, 격려하고 있습니다.

⑦ 춘궁극복운동

매년 일반 농촌에 통례적으로 찾아오는, 예측할 수 없는 가뭄피해를 예상하여 민심의 이완을 경계하고 일단 유사시를 대비함과 동시에 춘궁기에 영세민의 정신을 더욱 진작 시킵니다. 춘궁의 극복 돌파를 도모하기 위해 연맹의 적극적 활동하에 강담회의 개최, 선전 유인물 배포, 애국반 토의사항 실행 등의 방법을 통한 절식과 혼식의 철저화, 절주 금주의 실행, 대용식 채취 및 모내기 장려, 풍작기원 시행, 비황저축 등을 철저히 독려하여 춘궁의 극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⑧ 기타

자원애호의 견지에서 폐품 회수 및 군사원호사업인 국방헌금, 위문품, 출정군인의 송영, 군수품의 공출, 지원병의 후원 등도 연맹의 애국반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운동의 진전 조장시설로서 정동운동상의 추진대인 청년단의 확충 강화, 지도책임자의 교양, 강연 및 강담회의 개최, 유림층에 대한 본 운동정신의 함양, 인쇄물의 배포, 활동사진·그림연극의 실연 등 그 조성을 도모하여 진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반도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총동원’이라는 자구야말로 사변 이후에 나타난 표현이지만, 그 유래는 상당히 오래되어 시정 이후 혹은 일반사회교화사업에 의해 혹은 국민정신작흥운동 혹은 농산어촌진흥운동에 의해 그 기운이 양성되고 강화책을 전개했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전이 늦어진 것은 필경 일반 민중의 저급한 지식과 정신적 국민의식의 결여 때문입니다. 신속히 반도 민중의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급속히 황국신민의식의 심화를 도모하여 그 근본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실시중인 연맹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그 철저함을 도모하는 것이 긴급합니다. 연맹운동의 강화방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천강조사항의 선택

정동연맹의 강령 및 실행요목은 모두 시국하 민중의 자숙생활에서도 물론 긴급합니

다. 물론 물심양면에 걸쳐 항구적 국민의 신조로서 급속한 전면적 보급이 필요하지만, 항목이 다방면에 걸쳐 있어 일시에 이의 전면적 실시를 강조하는 것은 효과가 비교적 미약합니다. 조선연맹에서 정한 당면필행 2칙(궁성요배와 근로저축) 주의를 계속 실시하고, 지방연맹도 각각 그 실정에 맞추어 특히 실천을 강조해야 할 필수사항을 선별하여 상당기간 전력을 쏟고 전면적인 효과를 거둔 다음에 다음 강조사항으로 옮겨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애국반의 유기적 지도

애국반은 연맹의 기저조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의 실천조직체로서 그 활동은 곧바로 연맹원의 가정생활에까지 진전되어 본 운동의 원천적 성질을 갖습니다. 어떠한 상층연맹, 직속연맹이 명안을 갖고 임하더라도 애국반의 활동이 결여되면 실천될 수 없습니다. 애국반의 활동 여하가 본 운동의 전면을 지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중요조직입니다. 각종 관공기관에서 민중의 지도는 항상 상호간의 연락을 밀접히 하고 그 지도력을 애국반에 종합, 집중시켜 유기적, 일원적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2) 지방연맹사업의 조성

연맹운동의 선진인 지방연맹, 그 중에서도 군·면·부락연맹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본 운동의 적극적인 진전을 기도하는 까닭인데, 현재 지방연맹은 재원으로서 아무 것도 일정한 것이 없고 때때로 유효적절한 사업을 기획 실시하고자 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력 부족 때문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형상입니다. 가급적 국비 또는 도비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3) 내선일체 사실(史實)의 천명

조선통치의 근간, 정동운동의 최고목표는 내선일체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의 촉진책으로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원병제도, 내선공학, 학교명칭 통일, 씨 제도의 실시 등을 비롯해 지금 장려 중인 일본어 상용, 내선통혼의 적극화는 물론 긴요하지만, 더 나아가 장기간 맺어온 내선일체의 사실을 평이한 책자로 발행하여 널리 연맹원에게 배포하고, 강습이나 강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실을 천명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양 민족은 역사상 동종동근이라는 사실을 밝혀 양자의 정신적 결합을 도모하는 것이 내선일체의 완성, 촉진의 지름길입니다.

(4) 선전공작의 증강

일반 민중에게 본 운동의 진의를 이해시켜 사기를 고무시키고 그 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수시로 끊임없이 왕성한 선전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연, 강습좌담회의 개최, 인쇄물의 배포, 영화, 뉴스사진이 배포, 기타 선전공작을 한층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조장(助長)시설의 확충

본 운동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농산어촌진흥운동의 강화, 정동운동상의 추진력인 청년의 교양훈련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지원병 후원사업의 확충, 유림의 적극 대 계도시 설 등을 통해 중흥으로 본 운동의 진전을 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략)

〈출전 : 金相亨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23) 참의 정교원(鄭僑源)

(상략)

1. 운동의 실황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창시 이후 비약적 발전을 거두어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애국반을 조직하였습니다. 전면적으로는 황국 정신의 현양, 내선일체의 완성, 전 시정책에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고, 그 밖에도 국책에 관한 것에는 거의 정동연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의 회수, 한해대책 절미시설, 연료절약, 저축 장려 및 지원병 후원, 증미계획의 실시 등에 협력하고 정신 방면에서 황민화운동과 함께 점차 현저한 성적을 올리고 있음은 현저한 사실이며 중외 고루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농촌 방면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취락으로부터 도시로 나아갈수록 비교적 부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생활의 쇠신 및 국민적 인고연마의 점에서 그렇습니다. 즉 통화의 팽창이 소위 호경기를 초래한 것처럼 사치품의 유행과 향락 기분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점매석이 끊이지 않고 부인의 의복이 화려함을 더하고 금력(金力)이 작용하는 바가 결국 한편으로는 주택의 불저(拂底)와 교

통기관의 폭주가 되었습니다. 즉 전 조선적으로 보아 별로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데도 각 도시는 심각한 주택난을 호소하고 기차, 전차 모두 초만 원의 상태입니다. 이는 대부분 참고 인내하던 자가 점차 사치로 치닫고 있는 한 증거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경성부 내를 비롯해 가까운 도시 모두를 보건대 이러한 극단적인 사치행위는 정동의 체면도 있어 어느 정도 자제하는 풍조가 생겨서 매일 애국일의 엄수, 절미운동 등에 착수하여 상당히 적극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약간 뜻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농촌 방면은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성적이 좋습니다. 지도자의 지시를 준수하여 궁성요배, 근로보국, 국방헌금, 애국저금, 폐품회수 등 지방에 따라 각각 특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많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도 부지런히 완성과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더욱 강화, 철저히 하여 국민총력을 발휘하기 위해 신속히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구의 통합 및 확충

현재 정동기구는 총독부에 정동위원회 및 동 간사회가 있어 본 운동의 기획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별도로 정동 조선연맹을 결성하여 계통적으로 전 조선의 도·부·군·읍·면·부락연맹 및 애국반의 지도와 통제를 담당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명실공이 관민 협동의 단일기관으로서 일원화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본 연도에는 총독부 및 각 지방청에 상당수의 전무직원도 설치될 것 같으므로 통합을 단행할 절호의 시기라고 믿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을 통해 목적이 같은 단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 단체는 가능한 한 정동연맹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총독부의 방침은 대중적 견지에서 신속히 단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상무추진원의 창설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에 정동운동만으로는 긴박한 시국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동 조선연맹은 추진대원 제도를 창설하여 특별지원병 제대자, 부여의 중견청년수련소 수료자, 기타 적당한 자를 추진대원으로 임명하여 이들을 정동운동의 추진력으로 삼아 모범을 보이게 하여 이들 중 상당한 실적을 올린 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가업이 있기 때문에 정동운동에만 전념할 수 없습니다. 또 가업 관계상 이전성이 많아

지방의 실세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국책 수행의 현황을 보면 시국을 틈탄 불령도배가 날뛰고, 정신 방면에서는 소극적이지만 암암리에 비협동적 태도를 지닌 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자 방면에서는 매점매석을 일삼거나 은진산업 방면에서 호화방탕의 기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헌의 단속만으로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중앙 및 지방에 상무 정동추진원과 같은 제도를 창설하여 이들 추진원이 상시 담당구역을 순회하여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지시한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3) 소요경비의 공비(公費) 지급

정동운동은 국가의 의지 그 자체를 실행하므로 소요경비의 공비 지급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일본에서의 개조 이후 정동운동 소요경비는 전부 공비 지급으로 결정되어 부·현에서도 그 소요경비는 당연히 부·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지방연맹의 실황은 경비부족 때문에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변방법은 일본과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략)

〈출전 : 鄭橋源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24) 참의 김사연(金思演)

1. 운동의 실황

현재의 진용 및 운동의 실황을 살펴보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예상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 경하할 만한 일입니다. 생각건대 왕조명(汪兆銘)이 신중양정권을 수립했지만, 황국의 장기건설에 의한 동아신질서 수립은 앞으로도 난제가 많습니다. 특히 극동을 살펴보면 소련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미국 또한 교활하며, 영국과 프랑스도 황도의 대정신 달성에 반역국임이 틀림없습니다. 향후 국민의 거국일치, 국난타개의 결심을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조선연맹의 진용강화

지금 내선일체는 신념 강화의 단계로부터 나아가 실행 강화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동아신질서 건설에 대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실천 즉 국제 정세에 대응하여 일사불란한 통제를 강화하여 조선통치의 절대적 존봉자로서 광의국방의 절대적 확보자로서 민중교화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연맹의 진용도 현재보다 더욱 많은 새로운 사람을 모색하여 기용하고 강한 권력을 주어 위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략)

〈출전 : 金思演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25) 참의 조병상(夏山茂)

1. 운동의 실황

반도에서 정동운동은 사변 1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1938년 7월 7일 조선연맹의 결성과 더불어 전 조선에 걸쳐 각각 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의 완성과 실천을 병진하여 황국신민화의 본의에 의거하여 내선일체의 대사명을 향해 약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존엄한 단체에 의거하여 진충보국의 정신을 분기하고, 거국일치, 국민총력을 발휘하여 총력을 바쳐 국가의 요구에 집중하여 난국을 타개하고 제국의 흥륭을 도모하는 것을 본의로 정하고 이의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연맹강령의 수립

조선연맹은 결성에 즈음하여 황국신민정신의 현양, 내선일체의 완성, 생활의 혁신, 전 시경제의 협력, 근로보국, 총후의 후원, 방공방첩 등의 실천강령을 제정하여 나아갈 목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연맹의 조직

1938년 7월 조선연맹을 결성하고 이후 가와시마 대장을 총재로 추대하여 기구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 도, 부, 군, 읍, 면, 정, 동, 리에 각각 연맹을 조직하고, 더욱이 지역적으로 10호 내지 수십 호를 1반으로 삼았습니다(이를 애국반이라 부릅니다). 반의 수는 40

만 개를 넘는 성황을 이루고, 각 단체와 공장 기타 집단은 각각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진용을 정비하고 실천운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현저한 실천사항

이상과 같은 강령과 조직 밑에 21항의 실천요목을 정해 구체적 진로를 제시했으며, 그 현저한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국 인식의 철저화

사변 당초는 그 진의를 말하지 않아 성전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여러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정동은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중이 사변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잘 대처하는 길을 강구하는 것에 착안하여 순회강연 혹은 좌담회 등을 통해 시국 인식의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현재는 대중적으로 사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동아를 부흥하여 동양인의 동양을 만드는 흥아의 성업이 우리 일본인에게 부여된 사명이자 명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시국에 대처할 각오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② 근로정신의 함양과 봉사작업의 보편화

조선에는 종래부터 관행부역, 기타 공공적 근로봉사작업의 미풍이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진흥운동 이후 각종 기관을 통해 근로정신의 함양과 실행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는 하층계급에게만 부과되는 것처럼 오해하여 상층부 또는 유산계급은 도외시하는 실정입니다. 정동운동이 일어나자 적극적 보편화를 도모하고 시국 인식과 더불어 현재는 전 조선을 통해 근로보국대 혹은 애국반의 근로봉사대 등에 의해 널리 실시되어 국민총훈련과 장래의 국내건설상 아주 의의 있는 일입니다.

③ 전시경제의 협력

사변 이후 당국의 지도와 일반 민중의 자각에 의해 소비 절약, 생산확충, 공채 소화, 국방헌금, 귀금속 등의 정부로의 매각 등 반도 민중은 상하를 불문하고 전시경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항구성의 여부가 관심거리입니다. 정동은 이를 반도 민중의 일상생활상에서 구현하고 항구 내지 관습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항상 보급, 선전, 지도한 결과 현재는 철저해졌습니다. 다만 도시에서는 아직 불충분한 경향이 있어 도시연맹의 강화와 더불어 재발족의 필요를 통감합니다.

④ 각종 애국행사의 철저화

군대의 환송영, 유가족의 위문 및 원조, 각종 군사부조, 군수품조달 협력, 무운장구기원, 방공방첩의 상호 주의, 지원병제도의 주지와 동시에 응모자의 상호 권유, 애국일행사의 철저한 실행, 올바른 국기의 정비와 게양 등에 관해 정동 애국반은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⑤ 한해극복

작년 봄 이후 날씨 불순으로 인해 농사에 상당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작년 여름 8월 정동연맹은 '인심의 안정' '식량절약' '적극적 노력'의 3항목을 정해 전 조선의 애국반원을 총동원하여 실행에 노력하였습니다. 유언비어의 방지, 이재민의 동요방지 및 상호부조, 식량절약의 장려, 공동작업의 실시, 대용작에 관한 최선의 노력 등을 장려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도시인에게는 농촌에 대한 동정심을 환기시켜 한해에 대한 초기의 마음가짐을 풀게 하고 나아가 관청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각 지방별로 좌담회, 간담회 등 각종 타합회를 개최하여 철저를 도모했습니다. 또 항상 그 동향을 조사하여 그 때마다 적절히 지도하면서 존량 정신의 함양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한해대책으로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환기시켜 배급통제에의 적극적 협력과 철저한 식량의 절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반도의 정동운동은 불과 2년 만에 위와 같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관민일치의 협력으로 시국에 대한 투철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전도는 아직 요원하고 동아부흥의 신질서 또한 서광이 보일 뿐 완성은 아직 멀니다. 또 한편으로 구주의 동란은 지금 세계대전으로 흘러가면서 그 귀추 또한 우리나라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일억 동포는 국민정신을 총동원하여 전사의 각오로 새롭게 국가총력전 태세를 정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동 조선연맹의 사명이 중대합니다.

(1) 재발족의 마음자세

지금은 이론을 논하거나 행동을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다만 불언실행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현재 정동은 움직이지 않고 너무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이라고 믿

는 것이 있다면 맹진하여 환경을 제패하여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2) 관청과 정동과의 연락 협조

관청과 정동기간과의 사이에 철저한 협조와 긴밀한 연락을 도모하여 정보의 교환, 계획의 상호내시, 실시상의 타합 등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관민일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독부 이하 모든 관공서와 모든 정동연맹의 연계를 촉구합니다.

(3) 행정관청에 정동계의 특설

정동연맹은 무엇보다도 관청의 의도도 받아들여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준비를 정비하고 국가적 시설에 책응하여 실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 각 관청에는 정동계를 설치하여 이들과 밀접히 연락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현재의 기구를 이러한 기획에 합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내선일체의 완전화

내선일체는 조선통치의 근본이자 정동 조선연맹의 중심적인 사명으로 반도 민심의 추세를 좌우하는 근간입니다. 따라서 정동의 강화는 그 대부분을 내선일체의 구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선일체는 관념 내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숙명적 필연성의 문제입니다. 결코 인위적으로 좌우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겨진 문제는 누가 실행하는가입니다. 구현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반도인에게는 황국신민이 되려는 최상의 열의와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국민적 수양과 훈련을 쌓도록 모든 기회를 통해 이를 체득시킬 것.
- ② 일본인에게는 반도인의 황국신민화를 마음으로부터 환영하고 지도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교육시키고, 또 장래에는 모든 기회를 통해 받아들일도록 지도적 입장에 있는 관공리가 스스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
- ③ 내선일체는 이론 또는 선전보다도 실행에 중점을 두고, 이 취지에 반하는 자에게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불문하고 반성을 촉구하고 적절한 처치방법을 강구하여 환경을 유발할 것.
- ④ 정동연맹 내에 내선일체 구현의 부서를 설치하여 내선일체화의 실정 및 지장이 되는 원인을 조사, 탐구하여 지도를 철저히 할 것.

(5) 각종 단체의 통일

현재 각종 단체 가운데 동일한 목적 또는 유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번잡하고 다양하여 운용과정에서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권한을 다투거나 의미 없는 마찰을 일으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를 빨리 적당히 통합시켜 정동운동하에 단일화하고 각 부문의 지휘, 감독만을 각각의 명령계통이 갖게 하여 앞에서 말한 폐해를 일소하고 가장 유효적절한 운용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관청의 지배하에 있는 각종 단체로 하여금 정동에 관계가 있는 것은 신속히 정동연맹에 합류시키고 각 부문의 지도, 감독은 각각의 관계 관청이 종래대로 취급할 것.
- ② 현재의 사상보국연맹, 방공협회 등을 정동연맹에 합류시켜 정동에 사상부를 설치할 것.
- ③ 군사후원연맹, 군인후원회, 국방협회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합병하여 정동에 통합하고 전 항처럼 군사후원부를 설치할 것.
- ④ 민간단체도 동일하게 각각의 정동연맹에 합류하도록 적절히 지도할 것.

(6) 애국반의 개선

정동연맹의 효능은 첫째 애국반의 활동 여하에 달려있고, 또 애국반의 활동 여하는 반장의 인물 됨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현황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이들은 인적, 질적으로 결여된 곳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동운동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국반장의 인적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 조선 40만을 넘는 반장 모두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배자인 정·동·리연맹 이사장 즉 정 총대, 동장, 이장 등의 인선을 바꾸어 이들의 지도력과 힘에 의해, 반장은 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 ① 정동리제를 확립하여 이들의 대표자 즉 정·동·리연맹 이사장의 인선에서 최고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
- ② 조선의 각 도시에서 정회제를 개선하여 현재의 임의적 단체를 공공단체로 바꾸고 그 대표자는 행정당국에서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것.

(하략)

〈출전 : 夏山茂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2. 1941년 6월 10~11일, 제22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1) 참의 장헌근(張間憲四郎, 하리마 겐지로)

1. 일본 정신의 양양

현재 (조선)반도 민중의, 크고 끝없는 황은과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직 부족한 것은, 요컨대 일본 정신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반도 통치상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빨리 일본 정신을 파악케 하기 위해서는 각 면(面)을 단위로 하여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고 각종의 의식과 기타 행사를 될 수 있는 한 신전(神前)에서 행하게 하여, 신을 공경하고 조상을 받드는 생각을 양성함과 동시에 신사참배의 관습을 훈육하는 일이 긴급합니다. 이것이 나아가서는 황은에 보답하여 받드는 정신 즉 일본 정신을 양양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향 즉 사변 후 반도인의 신사참배자의 수가 격증한다고 하는 실적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시설을 빨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국력의 인식

성전(聖戰) 이미 만4년째에 접어들어 이제부터 실제로 장기전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전시경제상 가장 중대한 시국에 직면해 있는 때에 국민생활 필수 물자의 공급이 종전에 비해서 얼마간 궁핍해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도 민중 가운데에는 이것을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비(軍備)가 점차 저하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 습니다. 따라서 실제의 국력을 일반 민중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은 시정상 진실로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국의 추이에 따라 민중의 기분을 한층 긴장시키고, 관민이 결속하여 국난 타개에 매진하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민중을 유도하여 제국의 군비나 경제력이 이후 어떠한 난국을 만나더라도 미동치 않는다고 하는 실황을 보여주어, 민심을 안정시키고 성전 완수의 결의를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공문서의 평이화(平易化)

반도 민중의 대부분이 문화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도표준은 이들 민중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을 지도하여 상의(上意)를 아래로 전달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정성스러움을 취지로 하여, 그들에게 올바르게 상의를 이해시키면, 각각 그 직장에서 열성으로 봉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각종 통첩문·선전문이나 시설사항의 해설 등에 사실 난해한 점이 많아서, 민중이 완전히 관독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시정의 근본정신을 그대로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래서는 어떠한 선정(善政)도 그 진의의 하달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고, 더욱 현재 국민의 각별한 자각을 촉진시키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민의를 상달케 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서 등은 매우 평이하고 간명하게 하여 민중이 한 번에 읽고 위정자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통감합니다.

4. 노동력의 조정

현재의 비상시국에서, 적성국가의 경제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저러한 생산력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착착 그 실적을 거두어 병참기지로서의 반도의 중대사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각 지방의 각종 사업 발흥에 따라 청년층에서 노무원 모집에 응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생산확충에 필요한 노동력에 대해 요즘 갑자기 부족함을 호소하는 실상입니다. 간혹 남아있는 노무원이라 하더라도 종래의 4~5배에 상당하는 보수가 아니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과 산촌의 지주는 농경지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 민중의 경제상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농업생산물이므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국책에 따른 생산력 확충계획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은 물론이고, 영농상 증대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가가 폭락하여 지방에서 지주들이 일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다. 물론 이러한 시국에서는 노인과 아이(老幼), 부녀자들도 협력 일치해서 총력을 발휘하는 일이 당연하지만, 그 지방에서 필요불가결한 어느 정도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이동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노동력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현 시국의 급무라고 생각합니다.

5. 조선 유도연합회의 활약

조선 유도연합회(儒道聯合會)는 황도 정신에 기초해, 유도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하에,

유림 상호간의 연락과 통제를 유일의 목표로 하여 1939년 말에 창립되어, 국책에 대응하고자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착착 그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반 민중은 이 연합회의 활약에 기대하는 바가 클 뿐 아니라, 유림은 반도의 민중에서도 상류계급에 속하는 소위 지도적 위치에 있는 관계상 그 일거수일투족은 곧바로 일반 민중에게 반영되는 바가 큼니다. 때문에 시간(時艱) 극복에 매진하려는 일대 결심을 촉구하고, 진실로 민중에게 모범을 보여서, 총후국민의 중책을 완수하도록 각별한 지도를 가하는 것이 현재 정세에서 가장 긴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張間憲四郎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2) 참의 이경식(李敬植)

전시하 반도의 민정은 극히 평온하고 견실하게 생활이 안정되고, 내선일체의 신념이 날로 그 뿌리가 견고해져서, 국제 정세가 긴박한 오늘날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황국 신민이 된 감격에 목 놓아 통곡함은 오직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 각하의 지적 덕택입니다. 특히 지난번 늦추위가 아직 매서웠을 때 만주국을 방문하여 만선일여(滿鮮一如)를 강화한 것은 재만 150만 반도 동포를 비롯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반도 동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일신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금 반도 동포는 내선일체의 굳은 신념 아래에서 총후의 임무에 진력하고 있고, 같이 향로를 떠나는 대선박의 안전을 기원하고, 하나가 된 줄기와 가지 모두 흔들리지 않도록 염원합니다. 당국의 방침에 순응하고 사상을 선도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더 주의할 점을 구태여 들자면,

1. 지도 방침의 간이화(簡易化)

지도 방침은 근간이 되는 큰 항목만을 정하여 그 실천궁행을 기하되, 너무 지엽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방침에서 너무 번잡한 지엽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스스로 번잡하게 되어 버려,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그 실천궁행을 혐오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신법령의 주지철저화(周知徹底化)

최근 여러 법령이 상당히 많이 공포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민중은 그 법령의 대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은 악의가 없어도 이전의 느슨한 분위기에 빠져 무의식중에 죄를 범하고, 다른 일부 사람은 범죄가 될까 두려워서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법령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강연·주해(註解) 팸플릿·신문지상의 좌담 기사 등을 통해 신법령의 취지를 쉽게 알게 하고, 총후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하여, 나침반으로 삼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물자통제의 강화와 그 배급의 원활, 균형

신체제하 총후국민으로서 자성, 자숙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목전의 급박한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한 변통을 꾸미는 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것에 관민이 모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운송과 배급이 어긋나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의 민활함과 배급의 적절에 앞으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자금 융통 방법의 개선

오늘날 자금은 일부 부유한 계급을 제외하고 기타 도시 농촌 모두 궁색하고 어려운 상황으로서, 그 융통과 운용상 깊은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즉 반도인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농산물로써 유일한 자금조달 자원으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담보 대금은 금융기관의 보류로 인하여, 농산물은 공판 통제로 인하여(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금융의 순환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곤궁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일용생활 필수품은 현금이 없으면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악성의 경기는 철저히 억압해야겠지만, 적당한 자금은 어느 정도 융통해서 일반 경제계의 위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李敬植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3) 참의 김진수(松宮晋洙)

1. 국민학교의 내선공학(內鮮共學)

현재 고도국방국가체제 확립에서 인적 요소가 중차대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인데, 내선일체의 운동은 시정 이래로 고조된 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직 확고한 일체정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자(分子)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요인은 일부 일본인이 우월감에 대한 반성 없는 조선인 멸시의 혐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융화책은 전적으로 아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현재 조선에서 국민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 아동을 분리하여 교육시키고 있지만, 이를 분리 교육하지 말고 내선공학 방침을 택해 유년시절부터 같은 자리에서 교육시키면 자연 융합하여 장래의 일체의 관념을 강화하여, 효과가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2. 공지(空地) 이용으로서의 하천부지 및 국유 미개간지 출원 절차의 간소화와 허가 신속

현재 생산확충에 뜻을 기울여 공지 이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지인 하천부지 및 국유 미개척지를 이용하려 해도 출원절차 등이 복잡하여 간단하지 않다. 또한 출원 중인 것도 허가가 신속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출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여, 각자 애착심을 가지고 농경에 힘쓰게 하면 생산, 확충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이라 믿습니다.

〈출전 : 松宮晋洙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4) 참의 하준석(河本駿錫)

1. 통제 강화 본뜻의 철저와 인심 위축 방지

일하고 일해서 보답합니다. 이익이 적다는 공리적(巧利的) 인습에서 각성하지 못한 일부 인사와 소자본가가 통제 강화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은 현상과, 통제로 인한 자유 거래 사업권 축소에 대해 자칫하면 총력분기(總力奮起)를 저해하기 쉽다는 일부 국민

의 오류를 일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통제 강화의 본뜻을 철저히 이해시켜 인심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통제 강화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권 위축 방지

통제에 필요한 하나의 요건인 일원적 기구화의 추진이, 나아가 지방자치권 일부가 중앙으로의 이행으로 되기 쉽다는 점에 비추어, 통제 강화기구의 근본을 지방자치권의 발휘 및 특이성 향상에 둬으로써 자치권의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부 학생 및 수면(睡眠) 계급층에 대한 시국 인식의 철저화

비판력이 왕성한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은 자칫하면 시비(是非)를 초월해서 연구적 태도로만 일관하기 쉽다. 또한 상층계급은 특히 그 가정의 전반적인 수면적 생활에 만족해서 향상의 기력이 결핍하다는 현황에 비추어, 이들 중견층에 대한 시국 인식을 다시 한 번 한층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관헌의 힘의 신장에 따른 관리도(官吏道)의 향상

현 태세에서 국민총력의 지도적 입장을 가진 관헌 힘의 신장은 더 나아가서 국민생활에 반영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점차 관리도를 향상시켜 민심이 쫓는 길을 확실히 파악하여 진실로 총력을 일으켜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전시 경제의 부담 균등

시국하 전시경제의 국민적 부담을 각 계층에게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수지(收支)가 명확한 사업관계 방면에 대해서 적정하게 부과함과 동시에, 탈루하기 쉬운 유산·자산 계급의 표면적 내지는 은밀한 이익에 대해서도 국가경제에 부담케 하는 방법을 고구(考究)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략)

〈출전 : 河本駿錫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5) 참의 김정석(金山韶能)

이제 일중전쟁은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남방문제는 활발히 전개되고, 미국과의 국교 또한 긴박하게 전개되는 등 많은 중대한 현안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한편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추축(樞軸)에 의한 '유럽' 신질서의 건설과 미국이 필사적으로 원조하는 영국은 점점 구미대전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 미증유의 변국(變局) 한가운데 우뚝 서서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조국(肇國)의 대정신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확립을 근본으로 삼되, 우선 황국을 핵심으로 하여 일만지의 강고한 결합을 근간으로 하는 대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사명이야말로 진실로 신성하고 중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그 영광스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선일체로써 사심을 멸각하고, 오로지 공(公)을 받들어 고도국방 국가체제의 확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경북도는 대륙에서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우방인 만주국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위치하여 제국 강역 중에서 가장 요충지이므로 도민의 조직적 훈련을 통해 국민자질의 훈련을 꾀하고, 여러 시설의 정비를 충실히 하여, 항상 일본 정신의 양양과 생산력의 확충, 비상시국의 전시 군사적 활동 능력의 증강에 전폭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국가 신체제에 즉각 호응하여 만에 하나 유감이 없도록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중의 일부에서는 장기전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이 종래의 자유주의 시대에 비해서 점점 궁핍함을 느끼게 됨에 이르러, 한편으로는 생산확충 계획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력과 전력이 저하된 것으로 오인해서 사변의 앞날에 두려움과 불안을 품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인심의 틈에 편승해서 적국인 제3국의 모략이 배후의 사상적 교란을 기도할 조짐이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일부 민중에게 현재의 국정과 세계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시책을 강화해서 시국의 어려움의 극복·황국신민의 연성에 매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시정상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개에 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1. 시국 인식의 철저, 강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부 민중의 오해를 제거하고 민중을 크게 격려하기 위해서 강연회·좌담회·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해 일중전쟁의 현대적 성격과 남양권의 문제·

육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로 비약해가는 우리 국력의 현상·독일과 이탈리아의 승리와 미국과 영국 패배의 확실성·신질서 건설의 의의·고도국방 국가체제의 진상 등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확신합니다.

2. 하급 관공리의 대우개선 및 면직원의 충실(充實)

신체제의 지도자인 관공리에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는 것은 현재의 급선무이지만 현재와 같이 급여가 박해서는 그 이상을 달성하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면서기, 순사와 같은 3~40원의 월급으로는 자녀의 학자금을 지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직역봉공(職域奉公)의 내실을 거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늘려 지급함과 동시에 주임대우(奏任待遇) 면장의 정원을 늘리는 등 물심양면으로 대우개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총력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생산확충의 강력한 발족 등에 따라서, 특히 제 일선에서 있는 면장은 항상 내부 업무에 너무 바빠서 직접 민중을 지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면에서도 읍과 같이 부면장의 제도를 설치하여 내부 업무의 처리를 담당케 함과 동시에, 사무의 실정에 적응하여 어느 정도의 증원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물자 배급 기구의 정비

성전(聖戰) 5년째임에도 평상시와 큰 차이 없이 행복을 향유해 가며, 안락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반도의 실정은 일본의 위대함과 감사함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으로서 일반 민중은 황은에 감읍하여, 물자부족에도 어떠한 불만을 말하지 않고, 소비절약에 온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급 기구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생활필수품의 매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의 불편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국반을 생활필수품의 배급기구와 경제조직의 세포로 활용하고, 통제물자의 배급 공출기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일부 애국반에서 실시되고 있는 쌀, 고무신, 면포의 배급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애국반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면 암거래·매점매석의 폐해를 일소할 뿐만 아니라 분배의 공평도 기대할 수 있고 친밀도도 저절로 배가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4. 정총대(町總代), 구장(區長) 등의 수당 공인

종래 정총대와 구장 등은 명예직으로 간주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시국에 관한 사무가 점차로 증가해서 현재에는 인쇄비·인건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일본인 측에서는, 근소하지만, 정내(町内)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반도인 측에서는 특히 부락연맹 등에서 회비를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장에 선임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점차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하부조직에서의 지도자 지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월 20~30원의 수당을 공인하고 이것을 연맹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 국민총력운동 하부조직 지도자의 인적정비 및 훈련

국민총력연맹이 탄생한 지 반 년 만에 이미 하부연맹의 조직을 완료하여, 관민일치 고도국방 국가체제의 확립에 매진해 나감은 국가를 위해서 진실로 축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기구의 정비를 서둘러 적당한 직원을 선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의하달·하정상통(下情上通)에서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이러한 지도자를 경질함과 동시에 정·동·리·부락(町·洞·里·部落)의 연맹 이사장을 지역별로 소집해서 지도강습회를 열고, 우선 운동의 취지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상회(常會)의 운용방법과 민심의 장악 기술을 교육합니다. 혹은 시국강화(時局講話) 등을 시행하여 지도자 소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점차 이것을 하부 애국반에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6. 근로보국대의 강화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에는 우선 근로봉사의 관념에 기초하여, 국민총력을 생산, 확충하고 공익사업으로 지향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 반도에서도 학생·생도를 시작으로 해서 일반 민중으로 근로보국대를 편성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국민 징용령을 본 따 기술이 있는 자는 물론 기술이 없는 자라도 만 20세 전후 신체 강건한 청년 모두가 등록해서 필요에 응해 수시로 각 공장과 광산, 토목공사 등에 동원함으로써 국가 총동원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필요한 지도교양의 설비하에서 적당한 보상을 실시하여 참가하도록 한다면, 농촌 청년 중 국민교육의 은전(恩典)을 받지 못한 불쌍한 다수의 청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정신적 교양과 육체적 단련 기회를 얻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7. 황국신민의 연성

반도 민중은 천황폐하의 적자(嫡子)로서 충의를 다할 각오를 가지고 애국적 지성을

발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그 뇌리에 조선과 일본이라는 대립적 관념을 품고서 헛되이 구습을 묵수(墨守)하며 평등의 권리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로 반도 민중으로 하여금 한일병합에 의해서 해소된 민족적 관념을 신속히 청산시켜, 진실로 야마토(大和) 민족으로 동화하도록 전반적인 지도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시책은 교육 및 종교에 기대할 것이 많아서 여기에서는 이에 관한 2~3개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1) 반도 아동의 일본 유학

반도인의 아동을 완전한 일본인이 되게 하는 첩경은 일본의 환경에서 일본인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6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남자 중등학교 약 1,500개 학교에 대해 한 학교에 2~3명의 국민학교 졸업 반도인 아동을 입학시켜서 5년간 일본인의 생활을 체험시킨다면 순진한 이들이 반도인 의식을 완전히 일소하고 조선에 돌아온 후에는 그 가족 및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 일본어 교육의 철저

황국신민이 되는 자질은 존엄무비(尊嚴無比)¹⁴⁾한 국체(國體)를 인식하여 만세일계의 천황폐하에 진충(盡忠)의 성의를 다하는 것이지만, 이에 이르는 방도로는 우선 일본어를 온전히 말하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말하기 때문에 일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항상 바르게 일본어를 가르쳐 그 상용을 엄중하게 장려함과 동시에 아동을 통해서 그것(일본어 상용) 가정까지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 출신의 교육자 중에는 발음, 작문 능력, 기타가 일본인 교원에 비해 열등한 자가 매우 많아서, 국민학교에서는 3학년까지의 기초교육 시기에는 힘써 일본인 교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과 동시에 교사는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풍부한 어휘의 모범을 보여주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국민적 작법(作法)의 훈련

반도 민중의 야마토 민족화에 일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일본과 조선 사람들의 풍속

14) 높고 엄숙하여 견줄 데가 없음.

습관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작법 교과서를 편찬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국민적 예의작법을 습득시키고, 나아가 그것을 가정에까지 연장하면 다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4) 과학적 태도의 훈련

동아공영권의 지도자인 우리 국민의 장래성을 생각할 때 일본 정신의 양양과 동시에 과학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특히 근대 과학과 관련 없는 유교사상이 농후한 반도의 민중에 대해서 과학을 통해 일본인적 태도를 훈련하고, 기술 존중과 근로애호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진실로 뜻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국민 전체의 향상에 목표를 두고, 기초교육인 초등학교에서 과학에의 관심을 배양하여 기초를 닦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이해적(理解的)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그 획득연구의 방법도 가르쳐서 아동 스스로가 사고하고 궁리해서 힘써 공부하는 습관을 양성하도록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수과(理數科)·작업과(作業科)에서 특히 연구의 방법을 교수시간 중에 알게 하고, 그 방법을 일정 시간 반복함으로써 연구의 과정을 훈련해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5) 사설교육기관의 쇄신

각종 사립학교·서당·사설학습강연회 등 중에서는 진실로 황국신민의 육성을 지향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자유주의적 사상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그 교과목의 내용·교사의 사상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하거나, 혹은 그 구조의 개혁을 명하거나, 또는 인적 요소에 쇄신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신도(神道)의 진흥

반도 민중은 조상을 숭배하는 관념이 두텁고 자연의 신령에 대한 신앙 또한 강하므로, 그 관념과 신앙을 정화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적 정신인, 황실을 총 본가로 하고, 황조(皇祖)를 국민의 총씨신(氏神)으로 삼는 국민적 신앙으로 유도함으로써 일본 정신의 양양과 내선일체의 완성, 즉 국민사상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어도 한 면(面)에 한 신사를 건립하여 아침저녁으로 참배를 장려함은 물론, 혼례와 기타의 행사를 모두 신사에서 거행케 함과 동시에 신직(神職)으로 하여금 신도에 대한 교화운동에 매진케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7) 종교단체의 선도

유교·불교·예수교 등의 종교는 이미 일본에서 일본화되어서 우리 국민정신을 배양시키는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반도에서는 아직 그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수한 단체로 취급하지 말고, 국민총화운동의 일익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가시키고, 그들의 생활에 파고들어 온정으로써 지도하여 위인숭배의 관념을 초월한 국민적 신앙에 도달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민정사찰의 강화

고도국방 국가체제하에서는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부문에 걸쳐서 우선 특정 지도자를 정하고 그 지도자의 창의와 책임으로 전체 활동을 지도하며 추진케 해야 합니다. 또 다수의 민중은 그 지도자에게 협력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종합적인 활동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지도적 의사를 될 수 있는 한 일반에 주지시킴과 동시에 일반의 총의(總意)는 될 수 있는 한 참작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지도 또는 협력자의 협력은 다만 정신적인 지도 또는 협력에 그치지 말고 각자 직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만, 당국이 그 실천 상황을 알려면 문장으로 된 보고서 또는 표면적 시찰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총독부와 각 도에서 민정 사찰의 기관을 강화해서 끊임없이 민정을 사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략)

〈출전 : 金山詔能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6) 참의 김관현(金光副臣)

1.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상을 통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사상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신의 양양은 물론, 조선에서는 내선일체의 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선일체의 완성에 대해서 역대 총독이 일시동인의 성지(聖旨)를 몸소 받드셔서 예의 그 구현에 노력하셔서 그 효과가 현저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그 방책으로서,

(1) 조선인 차별의 철폐

조선인 차별은 인정, 풍속, 습관의 차이에서 시간과 경우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힘써 이를 폐지하고 진실로 내선일체의 실을 거두어, 신부(新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황국신민이 되게 하여, 황국신민이 아닐 수 없을 때까지 조선 대중으로 하여금 황은에 감읍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실시를 요망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 ① 관청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정원제 폐지
- ② 내선의 공학제 학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정원제 폐지
- ③ 조선인 관리의 적극적 등용
- ④ 호적법의 실시
- ⑤ 조선인의 일본 도항자(渡航者)에 대한 여행증명제도 폐지

(2) 조선인과 일본인 간 결혼의 적극적 장려

내선일체라 하고 일시동인이라 하더라도 인정, 풍속, 습관이 다르고 혈통이 다를 때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감정의 일치는 기하기 어렵다. 일본어·일문의 사용 장려·일본의 시찰 등은 물론 좋다 하더라도 내선일체를 구현하고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감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지름길로서 조선인과 일본인 간 결혼의 장려와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 간 결혼 장려를 도모하고 싶다.

조선인과 일본인 간 결혼은 종래에도 상당히 행해져 왔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당국의 장려가 부족했던 것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조선인과 일본인 유력자의 자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내선결혼을 장려하고, 내선결혼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의 교부 및 기타 특전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별지원병의 정원 증가

총후에서 시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깊게 하는 데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황군장병과 관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사람의 감정을 기미(機微)에 접촉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총력운동의 하나로 정오에 전몰장병의 영령에 명복을 빌고, 황군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도하기 위해 묵념을 장려하고 있지만, 일본인은 별도로 하고, 조선인은 과연 몇 명이 진심으로 그 묵념을 거행하는가는 몹시 의문이 드

는 바입니다. 묵념이라는 것은 출정의 체험이 있는 자, 혹은 자기의 형제, 아들 내지는 친족, 친구의 출정, 혹은 전사한 자가 있는 경우에 가장 진지하게 거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병의 수를 증가시켜 조선인 자제를 가능한 한 많이 참가시키면 그 가족은 물론 그 친족과 친구 모두 시국을 강하게 인식하고 국가와 황실에 대해서 봉공의 관념을 강하게 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3. 물자 배급의 원활화

이번 사변에서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 원만한 성과를 획득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1억 국민이 일치협력하여 각각 그 생업에 힘써서 국가에 봉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으로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길은 다름 아닌 물자배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종래 일부 물자에 한해서 배급 통제를 해왔지만,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암거래를 감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매점매석을 하는 등 시국하의 국민으로서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단호 조치를 강구해서 물자의 배급에 유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저물가정책의 철저한 시행

한편으로 국민사상의 통일을 도모하고 물자배급의 원활함을 기한다 하더라도 물가의 양등을 내버려둘 때에는 국민사상은 교란되고 국민생활은 안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근본적으로 불을 끄지 않고 연기를 막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물가정책에 대해서 종래 당국에서는 가격·임금·소작료 등의 통제령을 실시하는 등 상당히 철저하게 통제하였는데, 그중에는 통제령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들 범칙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암거래가 성행하여 각종 통제령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에 저물가정책의 철저한 시행을 바랍니다.

〈출전 : 金光副臣,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7) 참의 정난교(海平蘭教)

1.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

일본인이라는 우월감과 자존심을 청산하고, 성전에 솔선수범해서 신도실천(臣道實踐)·직역봉공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조선인을 지도하여, 국민총력운동의 실천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2. 애국반장의 인물 선출

국민총력운동의 효과를 올리는 것은 모두 애국반장의 인물 여하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애국반장은 소질이 대체로 저급해서 대부분 반의 활동이 무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반원 중에는 시국에 대한 식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원, 지도에 적극적인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장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지식계급층을 반장으로 충당하여 본 운동이 효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물자 배급의 원활

전시하에서 여러 물자의 결핍은 피할 수 없지만, 배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국 암거래가 자취를 감추지 못하는데, 이는 배급의 사무적 처리의 결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속을 더욱 엄하게 하는 한편 배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물자의 배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생산확충자금의 융통

자칫 금융업자는 시국의 장래를 쓸데없이 걱정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자금을 제외하고 특히 생산확충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융자해서 민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노무 조절의 완벽

농촌에서 생산확충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노동력을 도시 또는 시국생산 방면에만 집중시키지 말고 이를 조금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 이촌의 원인인 현재의

식량정책에 따른 양곡류의 강제 매입은 전시하에서 어쩔 수 없는 시책이라 하더라도 농민이 굶지 않을 정도의 공출에 그쳐서 농토에 대한 애착심을 환기하고 노동력의 이혼을 방지함으로써, 생산확충에 더욱 정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급무입니다.

〈출전 : 海平蘭敎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8) 참의 김상형(金子相亨)

일중전쟁이 발발한 이래 이제 4년이 지나고, 밖에서의 충렬무비(忠烈無比)한 황군 장병들의 용분역투(勇奮力鬪)와 안에서의 총후국민의 화충(和衷)협력으로 가는 곳마다 혁혁한 전과를 거두어, 신동아질서의 건설에 빛나는 거보를 착착 디더나가는 것을 축하해 마지않는다. 여기서 우리 국민은 점점 결속을 굳게 하여 황운익찬(皇運翼贊)의 실을 거두기를 기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치세의 요체는 민심이 추세를 파악하여 민중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바르게 조치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국이 하의상달(下意上達)의 의도로써, 시국하 민정과 관련하여 시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문한 것은 매우 의의가 깊다고 생각하고 깊이 감격하는 바입니다. 이미 제20회 중추원회의를 맞아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 시정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 및 그 대책을 자문받았습니다. 당시 본원(本員)은 민중지도기구의 정비통일, 내선일체의 강화 등 5개 항목을 답신하였고, 그 후의 실정에 비추어 점점 그 필요를 통감하지만 이번에는 중복을 피해 다음 3항목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국민총력운동의 촉진 방책

우리 조선은 사변 발발 직후 일찌감치 전국에서 제일 먼저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결성하여 시국 인식의 철저와 국민정신의 진작(振作)을 중핵으로 하는 국민운동을 전체 조선의 방방곡곡에까지 전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일본의 대정익찬체제(大政翼贊體制)에 호응하여 국민총력연맹을 결성하여 총독부와 표리일체의 긴밀한 관계로써 강력한 총력운동을 추진해 나간 것은 의의 깊은 바입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을 진정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구의 확립과 더불어 이 기구를 담당할 진용의 정비가 필수요건이고, 이와 동시에 항상 민중의 동향을 명확히 관찰하여 그 지도

방침을 진정 민도와 관습에 합치시켜 민중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되이 고원한 이상을 말하거나 번잡한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잘된 방책이라 말할 수 없다. 오늘날 총력연맹에서 창도(唱導)하는 강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폭적 찬성의 뜻을 표하는 바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형식에 흘러, 그 항목이 많아 민중에게 호소하는 힘이 약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모름지기 일의 완급을 조절하고 실행의 난이도를 측정하여 실천항목을 정리하되 직절(直截)하고 간명한 사항을 잡아 전체 운동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획일주의를 배제하여, 지방의 실정과 민도의 고하를 참작하고, 각 지방에서 실제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의 창의와 공리를 존중하여 진정 적절한 운동방법을 수립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총력연맹은 고도국방국가제체의 확립을 그 최고 지표로 하는 이상 생산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정신의 양양이 없는 곳에서 생산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국민총력연맹으로 발전적으로 해소된 사실로써 총력운동이 정신운동을 경시한다는 느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력운동의 지도정신은 어디까지나 국민의식의 양양과 내선일체의 심화에 있고, 생산력의 증가는 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철저히 할 것을 특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2.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

미나미(南) 총독 각하의 취임 이래 오로지 뜻을 내선일체에 두시고, 이를 배양할 제반 시책의 실시와 맞물려 조선 민족의 황국신민화 운동은 흡연(翕然)하게 일어나고 있는바, 내선일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선 양 민족의 혈액의 혼합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약간의 비견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원래 내선 양 민족은 동조동근(同祖同根)으로서, 고대에 어찌다 나뉘어져 일부는 일본에 정착하여 대화민족이 되었고, 일부는 반도에 남아서 나라를 세워 오늘날 조선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명백합니다. 따라서 내선의 혼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타 외국에서와 같은 이민족의 결합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다. 조선과 일본의 통혼 장려에 대해서 총독부 및 국민총력연맹에서 이미 창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실적이 적음은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이는 풍속과 습관 등이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일 터입니다. 무엇보다도 불건전한 통혼은 오히려 배격해야겠지만, 우선은 내선의 유식계급이 이 점에 관하여 냉담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상층의 유식자계급에서 열의를 가지고 솔선하여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면 백 마디의 말보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 당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 장려함과 동시에 조선과 일본의 통혼을 저해하는 사실을 찾아내어 이의 개선에 만전을 기할 방책을 강구하도록 특단의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다음, 내선일체가 조선인과 일본인의 이해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조선인과 일본인 상호의 경제적 결합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국의 고려를 촉구합니다. 근년에 생산력 확충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자본가들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조선의 자원에 착안해서 반도에 진출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륙전진 병참기지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또한 조선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점에서 진실로 기뻐할 현상이지만, 모두 일본 자본의 독점에 맡겨져서 기업 이윤이 일본으로 환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장래 일본 자본이 진출하는 경우에는 조선의 자본 및 경영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명실상부하게 조선의 사업이라는 본질을 구비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내선의 접촉면을 확대하여 기업을 통해 내선일체를 추진시키면, 더욱 확고불발의 것이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당국은 속히 구체안을 연구시켜 지도방침을 천명할 것을 요망합니다.

3. 경제통제기구의 정비 개선

성전 이제 4년, 황군 용사는 일본 전 판도의 수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소모전을 전개하고 있는 한편으로 대규모 건설공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물자와 자금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국내에서도 고도국방국가체제 건설이라는 긴급한 요청에 따라 생산력의 비약적인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과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 정세로부터 추찰(推察)하면 이들 필요물자는 타국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상, 국내자원의 궁핍화는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여러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성전 목적의 완수에 매진할 각오를 가지지만, 자유주의 경제의 미봉을 아직 깨지 못한 일부 마음 없는 무리가 있고 배급기구의 부정비로 물자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량한 민중에게 불측(不測)의 오해와 불안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급기구의 정비에 대해서는 당국의 노력에 의해 점차 완비되어 가고 있지만, 중요한 지방기구와 하부조직의 정비가 늦어져서 물자의 지방적 편재를 초래하여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오히려 매점을 장려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자가 필요한 때와 장소에 원활히 배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의 실정은 오히려 통제가 물자의 유통을 저해하지는 않는가하는 인상을 일반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물자 배급의 음란(淫亂)이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연구하여 통제의 운용에 대해 한층 더 궁리에 몰두하는 동시에 통제의 취지를 충분히 민중에게 철저화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이 혼연히 전시경제정책의 운영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국가 흥룡의 원동력이자 인적자원의 공급원입니다. 특히 조선 농촌은 현하의 급무인 식량증산의 담당자로서 물자의 배급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농촌 노무의 수급조정에 대해서도 그 실정을 잘 참작해서 농공병진정책의 완벽을 기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출전 : 金子相亨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9) 참의 장용관(安本龍官)

1. 내선일체의 구현대책

종래에는 내선일체라고 하더라도 어딘지 모르게 격화소양(隔靴搔痒)¹⁵⁾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일청전쟁을 계기로 사상이 현저하게 호전되어 일중전쟁에 이르러 점점 내선일여(內鮮一如)란 느낌이 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내선일체는 정신적 통일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전반적으로 구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일본 조국(肇國)정신과 국체의 명징(明徵)을 깊이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로서 국체명징을 단지 추상적으로 주창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적음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를 우선 지도, 교양하여 일반 민중을 철저히 납득시키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류계급에 대한 지원병 응모 장려와 징병령의 실시

지원병제가 실시된 지 아직 수년에 불과한데도 그 성적이 양호한 것은 참으로 기뻐할 현상이지만, 이들 지원병은 주로 중류계급 이하 아니 오히려 하류계급 자제인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자는 지극히 소수로서 대부분은 관계 관공서 또는 후원회 등의 권유와 종용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하등 생활에 불안이 없고 상당한 학식을 가진 중상

15) 신을 신고 발을 긁는 격으로 성에 차지 않음.

류 계급층으로부터 지원병 응모자를 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러한 사정이 지속된다면 그 미치는 영향이 좋지는 않을 것이므로, 중상류 계급 사람도 스스로 지원하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등학교 이상에서는 군사교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단 유사시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군대 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군인정신을 체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졸업생(불구자, 폐질(廢疾)을 제외하고)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나아가 징병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농촌 애국반의 개선과 청년훈련의 강화

정신운동에서 실천운동으로 이행한 국민총력운동은 상하 상통하여 기구조직을 정비하고, 시국에 상응하여 활약하며, 시간(時艱)을 극복하여 착착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부 조직으로 가장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농촌 애국반의 현황은 도시의 그것에 비해, 인식은 결핍되고, 활동은 둔하며, 구태의연하게 뒤떨어진 것이 적지 않아서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진실로 명랑활발하게 활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진심으로 실천공행하여 몸소 모범을 보여 지도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종래 청년훈련소의 실적은 국민총훈련의 견지에서 미적지근한 감이 있습니다. 청년대 결성을 기회로 훈련을 엄행,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초등교육의 충실

내선일체의 구현을 위해서는 교육의 충실, 진흥을 꾀하고 문화와 민도를 높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등학교 이상은 잠시 제외하더라도, 초등학교의 충실을 특히 통감하는 바입니다. 당국에서도 사회 정세에 비추어 여러 계획을 수립해서 차차 실시해 나가고 있음에도 현재 초등학교 입학의 현황을 볼 때에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초등교육 확충의 목소리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반도민 일반의 여론임과 동시에 최대의 관심사로 민심에 파급되는 영향이 크므로, 특별히 가급적 충실을 기하고, 의무교육의 영역에 하루빨리 도달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농산물 생산확충의 확보

농산물 생산의 확충과 확보는 시국하에 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국에서도 이에 대

해 예의 연구를 실시하여 착착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농촌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특히 고구(考究)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각종 산업단체의 통일

각종 산업단체 중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때에 따라 마찰과 상극을 일으켜 원활하지 못하고 착오를 일으켜, 오히려 생산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들을 적당히 업무를 정리하거나 통일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술적 지도의 강화

기술원 중에서 유능한 자는 순차 상급기관에 모여 하급관청에서는 인재가 부족합니다. 특히 제일선에 서서 직접 농민을 지도해야 하는 읍·면의 기술원은 기술과 경험 모두 일반적으로 빈약하여, 지도를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또한 도청 이하 실행기술원의 대부분은 사무에 바빠 기술에 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군·읍·면 기술진은 강화하고 사무는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농산물 가격과 여타 물가의 균형 유지

저물가정책은 시국상 필요하여 점점 강화해야 하지만, 농산물 가격을 기타 물가 또는 노은(勞銀)과 비교하면 종전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농자가 채산성 면에서 다른 것으로 전업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과 균형이 맞도록 여타 물가에 대해서 연구한 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각종 통제 강화에 따른 실업자 구제대책

일중전쟁 및 그 후 국제 정세의 추이와 변천에 따라 각종의 통제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종래의 자유경제의 타성에 젖어서 일반적으로 부자유를 느끼고 불만을 가진 자가 없지는 않지만, 점차 시국을 인식하고 국책에 협력해서 시간(時艱) 극복에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자의 편재와 배급의 불원활이 아직 교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 중에서 실업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절한 대책을 고구하여 불안을 일

소하고, 진실로 명량한 거국일치체제로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전 : 安本龍官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0) 참의 박기양(江原基陽)

1. 각종 통제법의 개선과 그 취지의 철저화

물자통제·자금통제·노무통제 등 각 부분에서 상호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고도 국방국가체제의 확립에 매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통제의 일면을 고찰하면 이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가격통제령

농지가격통제령은 농경지 가격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곡류의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투자의 이윤이 풍부합니다. 종래의 실례를 보면, 농지는 토지가격이 뛰어 오르면 일반에게 분산되고,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면 토지가 겸병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농지가격통제령의 실시를 기해서 토지에 대한 투자를 조장하여 자본가에게 토지가 겸병될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기준가격 산출의 배율은 비옥한 토지에 대해서는 나쁘고 척박한 땅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에 상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소작통제령

1939년 9월 18일 현재를 기해서 정지된 소작통제령에 따라 고찰하자면, 시국하 식량공급이라는 중대한 사명으로써, 우리 반도의 도작(稻作)은 산미증식계획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토지개량과 함께 소작료액이 증액되었지만, 경지정리, 수리개량 등 지주가 개량증산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소작료의 증액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산을 부르짖는 시국하 개량사업은 정돈상태입니다.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점입니다.

(3) 택지건물가격통제령

도움을 불문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때를 맞추어 택지건물 가격통제령의 실시로 이윤을 억제했기 때문에, 물자난, 자금난과 함께 기업가는 이익을 얻기보다 오히려 손실을 입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 역시 주택건축에 관해서 진심으로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상은 두세 개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광범위한 통제는 고도국방국가건설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반면에 점점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일반 민중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 희박해져 불안을 느끼게 되는바, 국가총력전을 부르짖는 현 시점에서 참으로 유감임은 물론 나아가 성전의 목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점점 통제를 강화해 가는 것은 대동아 신질서의 건설에 따른 잠정적인 것이므로, 일반 민중이 철저히 인식하도록 적극 선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전 : 江原基陽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1) 참의 주영환(本城秀通)

1. 농촌진흥과 노무자 조절

조선이 예로부터 오로지 농업을 생활의 근본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는 바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물론 외지와 만주국 등에서 상공업 혹은 광산 등이 현저히 발달함에 따라 농촌의 중견 노동력층은 거의 대부분 농업 방면에서 나가기로 희망하여 각지로 떠나기 때문에 농사를 담당하는 자가 점차로 감소하여 농촌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조선 농가의 농사에 대한 노동력과 수입을 비교해 볼 때에 차이가 너무 현격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한 자작농가에서도 비료, 기타 필요한 농비(農費) 및 세금 등을 공제하면 간신히 기아를 벗어날 정도로 소작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에서는 더욱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실정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각 도시의 공장과 광산 등에서 노동하면 적어도 1일에 2~3원 내지는 4~5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생활할 때에는 반 이상을 남겨 1년에 수백 원을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에 비해서 몇 배나 낫습니다. 이러한 방면으로 떠나기를 희망하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

에, 농촌은 마침내 중견 노력자를 잃고 소작농과 같은 노유(老幼)와 부녀자에 의해서 가까스로 농사시기를 맞춥니다. 또 혼자 충분히 일할 수 없는 지주는 고용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농사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농촌 진흥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조선과 일본의 각 농가에서 능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잉여 노동력이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결코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관의 힘으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각종 단체의 통제

만세소동 이후 조선에서는 이르는 곳마다 많은 단체가 족출(簇出)하여, 혹은 종교와 유사한 색채를 띠는 것도 있고, 혹은 안으로 좌익과 우익을 표방하는 것도 있고, 혹은 사회교화·문화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각각 그 영역에서 활거하여 활동해 왔지만, 만주사변 이후 모두 제국의 실력과 진의를 이해하여 충량한 국민이 되기만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중전쟁이 발발하자 앞을 다투어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바, 실행하는 바의 형식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진충보국(盡忠報國)으로 귀일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기뻐할 만한 현상입니다. 게다가 지금 조선내 크고 작은 제 단체 모두 국민총력조선동맹에 가맹해서 총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자의 뛰어난 장점에 따라 연맹의 활동을 편하게 하게 하여도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는 일이 많겠지만, 연락, 통제상 정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선 내의 크고 작은 제 단체를 해체하는 동시에 연맹의 기구를 한층 확대 및 강화하여, 조선 내의 민중을 모두 연맹의 기치하에 집중시켜 한 덩어리로 만듦으로써 통제 정연하게 총력발휘에 매진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전 : 本城秀通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2) 참의 유태설(邦本泰高)

(상략)

2. 경제 통제의 강화, 철저

이상은 반도의 민정(民情)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의 일단을 설명한 것이며, 나아가 경

제통제 강화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그 일단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통제경제 관계법령의 주지 철저

경제관계법령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응대하기에 겨를이 없을 정도로 빈발하기 때문에 민중은 불안을 느낄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칙자가 되고 검거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라디오, 강연, 좌담회, 경제경찰상담소의 간담회, 기타 모든 방법을 통하여 그것의 주지철저·준법정신의 함양에 노력하여, 범칙의 사전 예방에 더욱더 공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군(府郡)에 경제관계직원의 증치

부군에 경제관계직원을 증치함으로써 지도 주지의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경제통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3) 조령모개(朝令暮改)의 폐단 폐지

경제관계 법령의 입안 또는 개정은 신중한 연구를 거친 후에 발표하여 조령모개의 폐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쓰오카(松岡) 외상은 “현재 대학을 나와 2~3년 되는 관리가 책상 위에서만 한 입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석탄을 통제하는 일을 맡은 자는 탄광 내에서 일하고, 쌀을 통제하는 일을 하는 자는 농민과 함께 쌀을 지어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조선 소주의 공정가격의 경우는 분명히 1년 사이에 4차례나 개정되었다. 처음 입안할 때 생산비, 기타를 신중하게 조사하지 않은 결과라고 사료되지만 무지한 민중은 개정에 의해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추측하여, 매점매석하여 암거래 등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런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경제사범의 검거 처분 방법의 개선

경제사범의 검거 처분에 대해서는 관용과 엄벌을 적당히 가려서, 범칙개별주의(犯則褻罰主義)보다 악질엄벌, 경자관훈(輕者寬訓)으로서 일벌백계의 방침을 택하고 동시에 크게 심적 동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범 가운데는 일반인의 약점을 악용하여 폭리를 탐하는 악질적인 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정책의 실수나 배급제도의 결함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위협, 혹은 통

제경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유경제시대의 타성으로 말미암아 부지불식간에 법을 어긴 딱한 자도 있으며 더욱이 그 수는 매우 많습니다. 이들을 모두 가차 없이 한꺼번에 똑같이 엄벌에 처하는 것은 국정상 좋지 못합니다. 일단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비국민·국적시(國賊視)하는 법이므로, 현재 국민 중에서 상당수의 비국민 또는 국적시 되는 자가 나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특히 이런 것은 나아가서 이적(利敵)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악질적인 자에 대해서는 엄벌로써 탄압하여 일벌백계의 실질을 거두고, 한편으로 법령의 취지가 민중에게 주지되지 않고 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자에게는 훈계 방면(放免), 기타 관대한 처분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심적 동원을 강화, 철저히 하여 형벌 대신에 정신을 진작시키고, 덕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침을 취하여 국민 각자가 자숙자계하여 위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가 총동원법이 물적 동원의 강화를 기하는 법률인 이상 그것과 필적하는 심적 동원 계획을 강화하는 것은 위정상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편중(偏重)은 국민정신의 권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5) 물자배급제도의 개선과 중소기업자의 실업구제

현재의 배급제도는 종래의 실적을 표준으로 하여 배급량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 대자본으로 경영한 상인은 혼자서 십수 종류의 대량 배급을 받고 더욱이 가격은 공정(公定)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큰 이익을 올리는 반면, 소자본으로 경영해온 상인은 도저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곤란할 정도의 배급밖에 받지 못하여 끝내 실업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결코 분배의 공평을 기하는 통제의 본뜻이 아닐 것이므로 적어도 중소기업자가 생계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양을 배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그들의 실업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수십 종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자는 그 양이 감소되어도 조금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무신의 예를 들면 현재 함흥고무회사에 5만 여 켤레나 되는 고무신이 쌓여 있는데도 통제조합의 자금부족 관계 때문에 그것을 시장에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요자는 신발 부족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需用)이 되지 않는 것은 시책 결함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물자배급량은 지방에 따라서 혹은 도매인가 소매인가에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의 경우 도시의 과자량은 사변 전에 비해 반 이하로 격감하여 영업곤란에 빠지고 있는 반면, 농촌에는 도리어 사변 전보다 공급량이 풍부합니다.

조선 북부 지방에서 냉면은 가장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식료품으로서 그것을 판매하는 음식점도 많으며, 배급 미만으로 식량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그것을 대용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것의 원료인 전분은 오로지 북해도에서 들어오지만, 작년부터 경성에 수입통제 조항을 설치했는데 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2천 원의 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빈약한 업자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배급이 심히 불공평하여, 지난번 원산항에 전분 2천여 포대가 선박으로 도착했지만 한 달 남짓 배급되지 않아, 원산 함흥에 있는 조선냉면집 1백여 곳이 영업정지의 곤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또 근래에 식료잡화품은 경성에 집중되는 정세인데, 경성의 도매점에서 지방으로 배급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는 완전히 동이 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성은 풍부하지만 지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활하지 못한 배급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은 크므로, 당국에서는 물가의 공정과 병행하여 물자의 원활하고 공평한 배급에 더욱 고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 미곡통제의 개선

현 시국에서 국민으로서 미곡통제의 근본방침에 공명하지 않는 자는 없지만, 다만 농민의 입장에서 실시방법의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해 다음에 진술하고자 합니다.

① 미곡대금의 현금 지불 엄수

농민에게서 공출하는 미곡대금은 가능하면 현물수령과 동시에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조합이 벼 등을 수령하고 수개월이 지나도 아직 그 조합의 금융관계상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농가는 납세, 농기구, 기타 영농자금, 피복비, 생활비 등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즉시 지불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② 중소농가의 백미 공출

중소농가, 예를 들어 연수입 벼 1백석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쌀로 납입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중소농가는 자신이 정미하여 왕겨는 비료 또는 연료로, 쌀겨는 소나 말, 돼지나 개 등 가축의 사료로, 분미(粉米)는 식량으로 각각 사용하고 백미는 팔았다. 통제 강화 후에는 전부 벼를 공출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얻을 길이 끊어져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것의 개선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잡곡의 도(道) 단위 제한

조와 기타 잡곡은 도를 단위로 하여 도의 반출만을 제한하고 도내에서는 이동, 매매를

허용하여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현될 경우, 한편으로는 농가에서 백미 소비 절약의 방편이 되고 또 배급부족이 발생할 때의 구제책이 될과 동시에 미곡의 암거래를 근절하는 방법도 될 것입니다. 현재 당국의 지정량으로는 농민은 일반적으로 부족이 초래되어 쌀의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타 농촌에서의 미곡통제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농민의 실상을 자세하게 연찬(研讚)하여 농민의 활기를 고무하도록 힘써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박하고 더욱이 시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농민이 만일 자신이 지은 곡물 중에서 자신이 먹을 만큼의 양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활기를 잃어버리는 경우, 그것은 나아가서는 노동력을 감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산증수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깊이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 조선 풍기의 숙정

총후국민으로서 자숙자계해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금융통제, 저축장려의 결과 저절로 유흥이 점차 감소해야 할 터인데도, 근래에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요리집은 언제나 초만원이고, 이룸 있는 요정은 수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만큼 예전보다 더한 성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낭비하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도 있지만, 현재는 각종 통제 강화 때문에 조금 큰 상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 허가 또는 지정을 필요로 하여, 그것의 배급권획득운동·지정권보존운동·국책사업 조성금운동 등등의 쟁탈운동을 위해, 혹은 위반자불검거운동 등을 위해 암암리에 요정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황의 한 원인이 된다고 추측되며 선량한 관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교묘한 수법에 걸려들 우려가 있으므로 풍기숙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전 : 邦木泰高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3) 참의 흥치업(南陽致業)

동아 전체의 안정과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려고 하는 동아신질서 건설은 흥아대업(興亞大業)의 본의이며 우리 제국의 중대사명입니다. 이 성업(聖業)의 대목적을 달

성하고 대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총력의 비약적인 증강을 기하여 국방전, 경제전, 사상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임은 새삼스레 말이 필요 없는 바로써, 일중전쟁 발생 이래 총독부에서는 이미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고도국방국가체제 건설을 목표로 삼아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함과 동시에 국내 제반 체제의 정비 강화를 기도하고, 반도의 민중 또한 국책에 순응하고 애국심을 양양시켜 총후의 적성(赤誠)을 모든 방면에 유감없이 발양시킴은 물론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에서 사상의 통일, 민중의 총훈련(總訓練), 생산의 확충에 매진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실로 기뻐할 현상입니다. 현재 시국의 중대성과 민간의 실정에 비추어 국가총력의 집결, 생산확충의 시설, 국민생활의 안정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책을 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에 기대하는 것과 중요 요망 사항을 적기하여 삼가 답신으로 삼고자 합니다.

1. 국민총력운동

(1) 제일선 지도직원의 증배

지도의 제일선에 서는 지도기관은 지금도 지도력 부족 때문에 지도의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부·군(府郡)에는 사회주사(社會主事), 읍·면에는 그에 준하는 전임 직원을 증배하여 지도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맹실천 대강의 주지 철저

연맹실천 대강의 주지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학습, 강화(講話) 등의 말로 하는 선전이나 인쇄물 배부를 통해 널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을 35항으로 나열하여 한꺼번에 실행을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번잡하므로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항목을 선택하여 반드시 행하도록 하고, 점차 보편화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물자, 노무, 자금 통제의 개선

(1) 저물가정책의 철저

저물가정책을 강조한 이래 각종 법령으로 현 시국에서의 물자 통제를 꾀하고, 간교한 상인을 경계하여 부분적으로 자재의 편중을 방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는 나날이 등귀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점은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저

물가정책의 철저를 더욱 기하여 총후국민의 생활안정을 피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폭등하고 있는 소, 돼지, 닭의 가격 및 노동임금, 우마차 임금은 차제에 빨리 억제하여 적정 가격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 곡물공정가격의 개정

미곡 및 잡곡, 곡물용 가마니의 현행 공정가격은 다른 물가에 비해 너무 저렴합니다. 이것은 농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바로써 생산확충정책 수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이들 공정가격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소운송업의 1역3점주의(一驛三店主義)

소운송업을 1역1점주의로 통제하기 때문에 하물 배달이 정체되고 고율의 임금을 징수하는 등의 불이익, 불편이 많아서 일반 사람에게 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운송업의 경우는 최소한 1역 3점주의를 취하여 통제를 완화하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생산확충의 강화와 개량

(1) 수리계(水利契)의 보급

농업의 근본인 논농사는 고래로 한밭과 홍수의 피해로 인해 경영하는 데 차이를 낳고 농촌을 피폐하게 하며 생산을 손모시키는 점은 기왕의 실례에 비추어 명백한 사실입니다. 몇 해 전부터 증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관개개선사업 등이 지지부진하여 예상한 것처럼 진척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한밭지대에 수리조합, 수리계를 보급하여 관개사업의 촉진을 도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공업제품의 개량

공업제품은 현재 원료난 때문에 대용품을 제조하지만, 그 품질은 열악한 반면 가격은 사변 전의 몇 배에 필적하는 가격입니다. 이와 같이 질이 나쁘고 값이 비싼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각종 공업품이 가장 우량 제품을 생산하도록 학리적, 기술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간이학교의 승격

간이학교는 반도의 특수사정, 즉 초등교육을 보편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유효하고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1차, 제2차 초등교육확충계획에 의해 이미 1면1교가 완료되었고 1면2교제의 도상에 있을 뿐 아니라, 시국의 추세에 따라 소학교를 초등학교로 개혁했기 때문에 현재의 간이학교는 점차 초등학교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제3차 초등교육확충계획에서는 간이학교 제도를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5. 저금 장려와 천인저금(天引貯金)

장기 전시체제하에서 적극적으로 저금을 장려하여, 그것을 공채의 소화(消化), 생산력 증강, 자금 공급에 충당함과 동시에 물가의 등귀를 억제하고 민중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 국민은 그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벼의 공판에 즈음하여 빈부를 불문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1할의 천인저금은 민중에게 시국을 깊이 인식시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지극히 적절한 조치이지만, 그것을 영세농민에게까지 시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 소작농은 연수입이 불과 2~3백 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과금, 기타 모든 생활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조금도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부족이 생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세 농민에게까지 천인저금을 시행하면 농촌진흥의 암적인 존재인 고리대가 재차 쌓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인저금은 지주계급에게만 시행하고 영세 농민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6. 곡물검사소 직원의 증원

벼의 공판제도 실시 이후 농민은 시국을 잘 인식하여 탈곡과 함께 벼를 공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대한 수량을 집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가 민활(敏活)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몇 주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농민이 입는 폐해가 큼니다. 벼 검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 농민은 벼 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헛되이 낭비하고 3,4리나 떨어진 검사장을 왕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단을 내려 직원을 증원하여 벼 검사를 민활하게 함과 동시에 농민이 입는 폐해를 일소해주시기 바랍니다.

7. 구장(區長)의 우대

구장은 읍·면 행정기관의 보좌역의 중책을 맡은 자로서 읍·면 행정의 발전을 위해 실로 노력하는 바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변 발생 이래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당초부터 국민총력운동에 이르기까지 부락연맹이사장을 겸하여 본 운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열사봉 공하는 바가 아주 큼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장의 활동은 국민총력운동의 실적 및 읍·면 행정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차제에 우대책으로서 유급제로 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전 : 南陽致業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4) 참의 문명기(文明琦一郎)

1940년 10월 15일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국민총력운동으로 개편한 이후 제반 사항에 예의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은 미나미(南)총독각하를 비롯하여 상하 일치단결, 내선일체의 구현, 고도국방국가체제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까지는 늘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을 체득하고 황국신민서사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당국에서도 시정상 선후책(善後策)을 강구하여 더욱 민정에 유의해주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비견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상전의 강화, 철저

장기전에 즉응할 총력정신을 더욱 강화하여 철저하게 하고, 자칫하면 게을러지려고 하는 총후국민의 기풍을 지도, 독려할 것을 요합니다.

2. 각종 통제의 완화

신체제의 결과로서 근래에 모든 것에 대해 통제가 이루어져 제반 사항에 대해 허가 혹은 인가가 필요하지만 문맹이 많은 반도의 현 상황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으므로 조금 간편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랍니다.

3. 애국반장 등의 표창규정 창설

총력연맹의 근원인 애국반장 및 기타 간부에 대한 표창규정을 마련하여 장려의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조상숭배와 야마토 정신(大和魂)화

종래 조선의 조상숭배는 신위를 본위로 봉사해왔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경신숭조(敬神崇祖)의 관념을 한층 더 독려하는 데에는 야마토 정신화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믿습니다.

5. 각종 통제법의 취지 철저

물자, 자금, 노무 등 모든 통제에 대해 당국자가 공덕심(公德心)을 가지고 취급하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며 또한 그 취지를 일반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자칫하면 무지한 노동자 등이 오해하여 노무에 종사하지 않고, 혹은 종사해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여 산업 확충의 목적 달성에 매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출전 : 文明琦一郎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5) 참의 최준집(丸山隆準)

반도 시정 30년의 과거를 돌아보며 한 해, 한 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온 과정을 회상할 때 감개가 새로운 바가 있습니다. 병합 당시 열국의 백안시와 반도통치에 대한 비관적인 비판 및 세정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차례의 소란을 상기할 때 격세지감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타파하고 지금 반도는 산업, 문화, 경제 모든 방면에 걸쳐 생기발랄한 일대 약진을 이룩하고 있는 동시에 안으로는 민심이 귀일하여 과거의 시정에 고통을 받던 민중도 총독부 시정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만주사변을 경계로 하여 일어난 농산어촌진흥운동 이래 반도 민중의 애국열은 갑자기 팽배하게 일어나며, 또 이번 성전 5년 사이에 몸으로써 구현해 나가고 있는 애국운동 중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데 아깝지 않을 것이 적지 않다. 이것은 오로지 통치의 실적임을 의심할 수 없는 바입니다. 향후의 통치 목표는 이렇게 눈을 뜬 반도민의 애국열, 아니 황

국신민이 되려고 하는 지정(至情)¹⁶⁾을 어떻게 이끌고 양양시켜 내선일체의 실질을 올릴 것인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미나미 총독의 시정 또한 이것에 근본을 두고 내선일체의 현현(顯現)에 정진하고 계시는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이지만, 그 사이에 처하여 민정을 살피고 민중이 나아갈 길을 잘못되지 않게 하는 것은 실로 선정의 요체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현재 조선의 민정에 비추어 시정상 유의할 점에 대해 두세 가지 답신하려고 합니다.

1. 민중교양의 철저화

현재 국민총력운동을 실천하고 하부조직인 애국반을 운용하여 상의를 하달하고 민중을 계몽하고 있지만 아직 진실로 대동아건설에 따른 반도의 사명, 신경제의 윤리, 생산확충운동의 사명 등을 방방곡곡까지 투철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상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제경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혹은 생산확충운동에 대해 아직도 종래의 자유경제시대의 자기이득을 꿈꾸는 자가 향간에 산견(散見)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민중교양에 일대 박차를 가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의 수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 행정부문을 총동원하여 열과 힘에 의해 민중의 뇌리에 시국인식 및 장래에 나아가야 할 길을 숙지시켜, 솔선하여 국책에 따라 협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에 빠진 연후에야 뒤미처 그를 벌합니다. 이것이 국민입니다.”는 옛말대로, 민중의 무지로 인한 불평불만 내지 범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민일체 총력발휘를 통한 민중교양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2. 물자배급기구의 적정화

‘전시에 이득을 얻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전시 국민경제의 근본적인 최고의 윤리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통제경제를 강화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바, 즉 그것의 합리화를 통해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을 실현하고, 소비규제를 통한 물자의 확보에 의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침에 입각하여 일반 민중에게 배급되는 물자가 중간배급기구인 중간상인 등의 자기 이윤추구 때문에 균등 배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향간에서 듣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제를 담당하는 관공리가 번잡한 통제 사무를 쉬지 않고 처리하

16) 더없이 지극한 충정.

고 있는 데에는 경의를 표할 만하지만 배급의 완전화, 공정가격의 절대이행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생활필수품의 배급

통제경제강화의 목적은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을 첫째로 하여 생활필수품 배급의 합리화에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국가의 건설을 저해할 수 있는 대량의 민수품 배급은 논의이지만, 민중의 직접생활필수품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급해주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민중의 의복 기지인 면포나 학생의 운동화와 고무신 등의 경우, 현재의 배급 한도 이상이 국방계획을 저해한다고 하면 굳이 바라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배급을 행함과 동시에 배급말초기관(배급 상인)의 감시를 엄격히 하여 민중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4. 하의상달의 철저

국가 의사는 지상명령으로서 국민은 그에 귀일해야 하며, 특히 전시하에서는 철저하게 그에 따라야 함은 민중이 모두 아는 바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발표할 수 없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의견이 행정상충부에 반영되지 않고, 걸핏하면 여론에 영합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폐단이지만, 백성의 바른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치의 기초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당국은 허심탄회하게 조금도 백성으로 하여금 '오싹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제일선의 읍회, 면협의회, 각종 위원회 등에 숨김없이 답신하도록 하여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여 선정의 기초로 삼도록 연구해주기를 요망합니다.

5. 각종 통제법의 취지 철저

원래 인심을 나태하지 않게 하되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 정치의 요체로, 장기전 중인 오늘날에는 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빈발하는 각종 통제령에 대해서도 민중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껴서 통제경제의 운용에 즈음하여 통제는 억압으로, 공익우선은 국민생활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운용상 상층계급에 관용하고, 하층계급에 가혹하다는 이야기를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왕왕 듣게 되는데, 이는 상의하달이 철저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임은 물론이지만, 행정의 운용은 인

심을 위축시키지 않고 국민의 발랄한 의욕을 국가 목적에 동원하여 행동하게 만드는 데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함을 통감합니다.

(하략)

〈출전 : 丸山隆準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6) 참의 한규복(井垣圭復)

현재의 긴박한 국제 정세에 즉응하여 진실로 내선일체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에 매진하기 위해 국민총력운동의 추진, 기타 각 방면에 걸쳐 지도를 하고 있는 한편, 물자, 자금, 노무 등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것이 반도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시정상 깊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사치 낭비자의 탄압

무릇 정치의 요체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시정방침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 그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의 시정에 협력하고 나아가 그것을 보충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할 것인즉, 이렇게 되어야 정치의 참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건대 관민상하 혼연일체가 되어 고도국방국가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일부 민간에서는 이 점에 대해 얼마간 철저히 못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근래 일부 사람들은 시국의 중대성을 돌아보지 않고 사치와 낭비를 일상의 행사로 삼는 자까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단지 사회교화의 힘으로 교정을 도모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므로, 한편으로 관의 강권으로 모종의 탄압을 가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근래 각 요정의 경기를 보건대 올해 1월 이후의 매상은 작년 동기간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어 여전히 요정경기는 상당합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면 아직도 긴장, 자숙의 형적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전 국민의 긴장, 자숙을 요하는 이 때 진실로 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교화를 통해 교정에 힘쓸 뿐 아니라, 모종의 탄압을 가해 억제함과 동시에 이들의 잉여 수입을 저축으로 충당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2. 민정의 조사와 대책

현재의 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청취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실정에 적절한 선정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은 우선 민정의 기탄없는 발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하의상달이 이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심히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정시찰위원을 선임하여 각 도에 수명씩 파견하고, 각 부문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득책입니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년간 지방행정에 경험을 가진 자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학식이 있는 자라도 복잡다단한 지방행정상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총독정치의 대강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고 또 운동동향을 아는 자를 그에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설기관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수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 시험적으로 실행하면 대체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히 국부적, 피상적이지만 내가 전문한 바를 일단 참고를 위해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총력운동의 추진

조직망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전 애국반원의 활동 및 실행상황을 보건대 일부에는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철저한 기풍을 일으키기 위해 대대적으로 선전, 강연, 강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교통이 불편하고 성적이 나쁜 부락을 목표로 하여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선일체의 철저

모든 동일사회 동일계급의 조선인과 일본인이 우선 실천궁행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내선일체를 구현하는 첩경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건대 이 점이 과연 이상적인 경역에 도달했는지 의문이므로 우선 이 점에 대해 크게 기풍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반도인이 문화에서 또 재력에서 조금 더 향상되지 않는 한 이상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결과를 서둘러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물자의 통제 개선

생활상 필수불가결한 것은 식량과 빨감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통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습니다. 하급기관에서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너무 가혹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애정이 있는 조치를 취하여 민심의 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한 구체적인 실례는 많은 것 같다. 농촌에서는 비료, 노동력 등의 부족으로 농업경영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식량 배급 상황은 매우 원활하지 못하며, 더욱이 배급업자만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극히 열악한 식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농민의 심리상 및 육체상의 고통이 커서, 농업정책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노동임금의 통제

현 시국에서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하여 농공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노임 통제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지방의 실례를 보건대 노동자의 일용임금이 통제가격으로 1원 10전 하는 지방에서 1원 50전 내지 2원에 고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통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종 물가와의 관련을 자세히 살피고 노동자의 생활 상태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자금의 통제 완화

생산확충, 고도국방국가건설을 위해 자금 통제가 반드시 필요함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칫하면 금융이 원활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자의 실업과 몰락의 수치를 키우고 경제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의 전업, 실업 대책에는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금융대책을 임기응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전 : 井垣圭復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7) 참의 유만겸(俞萬兼)

성전이 시작된 지 이미 5년, 그 사이 황군 장병은 천황의 위광 아래 빛나는 전과를 거두어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위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정세는 긴박감을 더하여 세계는 진실로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하여, 앞길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제국이 세계의 신질서 건설의 지도적 입장에서 천하를 한 집처럼 통일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의 이상을 중외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도국방국가체제를 확립해야 함은 물론, 그 기초가 되는 강력한 국내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국가생활, 국민생활의 영역에서 신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그 때문에 행정기구의 확충 및 교육제도의 개정·경제 신체제·국민조직 신체제에 의한 국민총력운동의 추진 등 각 부분에서 강력한 지도를 가하고 있지만, 생산력을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물가, 물자의 통제 및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자금의 편중을 피하고 노무의 수급 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정에 비추어 시정상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 관계의 신체제 강화

(1) 행정기구의 재검

사변 발생 이래 총독부 및 도(道)에서는 상당히 확충, 정비되고 있지만 부·군·도·읍·면(府郡道邑面) 등 제일선 행정기구에서는 종전에 비해 커다란 확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실정에서 볼 때 총독부 및 도는 사무 중점주의에 의해 오히려 국부과(局部課) 정도로 해서 상당한 인원을 줄여 하부 행정기구를 확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연락, 협조의 철저와 사무의 종합 일원화

사변 발생 후 시국에 수반되는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상급관청에서는 상당 인원이 증원되었지만, 연락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직 할거의 폐단이 있어서 수속이 너무나 번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는 종합하여 일원화함과 동시에 수속상의 간이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인재의 발탁 및 하급 관공리의 우대

각종 생산시설의 확충·출정·응소 등으로 인해 인적 자원은 부족한 반면 관공리는 더욱더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하급관공리의 대우는 박하기 때문에 관공리의 소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문관 임용령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인재를 발탁함과 동시에 하급관공리의 대우를 개선하여 관청 능력의 증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국민총력운동

(1) 총력운동의 현재 상황

시국의 추이에 따라 총력운동은 상당한 박력을 가지고 진전되고 있습니다.

(2) 유의할 점

① 운동내용의 과대와 지도력 부족

운동내용은 상당히 광범한데 지도력이 그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② 획일주의의 폐단 제거

지방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획일주의로 인한 폐단을 제거할 것.

③ 민심 이완의 방지

자칫하면 허식에 흘러 민심을 이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견실하게 추진할 것.

④ 상회(常會)의 장려

총력운동은 조선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종의 사회교육운동의 사명을 갖기 때문에 힘써 상회를 행하도록 하여 비상시국에서 국민의 필수 지식과 나라의 내용을 알게 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연성함과 동시에 상회를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도시에서는 애국반 단위로 하고 농촌에서는 부락단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⑤ 민중의 단체적 훈련

우선 정촌(町村) 부락연맹의 간부에 대해 단체적 훈련을 하고, 그에게 연맹원 전부의 전체훈련을 실시하게 할 것.

⑥ 부인의 힘에 의한 총력운동의 추진

하부 연맹의 왕성한 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는 연맹의 전체적 총력에 의지하는 바가 많지만,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보건대 부인에 대한 운동, 그것의 철저가 결여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운동 추진력의 일부를 부인회에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⑦ 각종 후원단체의 통합 포섭

국민총력운동의 발족에 의해 각종 단체는 통합 포섭되었지만 각종 후원단체, 예컨대 지원병후원회·경방단후원회(警防團後援會)·청소년후원회, 지방에서는 도로유지비 후원회, 기타 각종 후원회가 아직 존재하여 일반 민중은 상당히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력운동은 상당히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구체적인 시책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종 후원단체를 총력연맹에 통합하고 포섭하여, 이미 설치된 총력연맹의 각 부에서 각각 예산을 수립하여 총력연맹회비로 그것을 징수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경리하도록 하면 민중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연맹의 추진 경비 지변도 용이하여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략)

〈출전 : 俞萬兼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8) 참의 정교원(烏川僑源)

일중전쟁의 장기화와 세계적 정세 변환의 진전에 비추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정상 다음 점들을 특히 유의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성전의 의의 천명

성전의 본뜻에 대해서는 사변 이래 당국에 의해 수시로 표명되었고, 특히 전에 고노에(近衛) 총리대신의 성명, 소위 고노에 성명에 의해 성스러운 이유도 구체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노력과 더불어 반도 민중에게도 유럽의 전란 발발 이래 그 방면의 전투상황이 상당히 활발하게 보도됨에 이르러 민중의 관심에 현혹을 초래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다. 차제에 제반 시정상 한층 더 성전의 진의를 천명하여 반도 민중으로 하여금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굳게 하고 그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하는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2. 도의관념의 강조

국제 정세의 변환에 따른 소국의 몰락 내지 관계국가의 항배를 ‘힘의 승리’라고만 바라보는 풍조가 있습니다. 혹은 일부 부득이한 점이 있겠지만 국내의 현상에 대한 민중의 판단은 자칫하면 정곡을 벗어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자의 공출, 물가의 공정, 자금 통제 등에 대해 그것을 단순히 국가권력의 작용이라고만 판단하고, 더욱 나아가 이들 시설의 본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드뭅니다. 이해가 없는 데서 참된 협력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곡물공출에 대해 한 마디 하자면, 1940년도 미곡 수확고 조사 때 소재 군민의 태도는 그 전년인 1939년의 흉작에 데었다는 일념으로, 수확고를 되도록 적게 신고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각 도시의 미곡사정이 상당히 핍박을 받고 있는 데 비해, 조선 내 농촌에서는 예년에 없이 다량의 쌀을 먹는 상황이 보이는 것은 현저한 적례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의 기구 쪽에서도 통계자료의 취사 내지 시설취지의 철저 등의 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겠지만, 민중 측에도 조선의 오늘이 있는 까닭을 이해하고 또 지난 1930~1933년 무렵 미가가 폭락한 당시에 조선의 미가가 주로 일본 경제의 부담에 의해 유지되었던 실적도 상기하여 도의심을 발양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기타 여러 행정에서도 시설 그 자체의 근저를 이루는 도의성을 한층 더 양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3. 국민적 자각의 촉진

시국에 대한 일반 민중의 국민적 자각이 드디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부적으로는 그 언동에서 또는 실천에서 철저한 개선을 촉구할 점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의 정세에서 통제경제운영의 필연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인 개개의 물자통제에 대해 암암리에 불평의 탄성을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혹은 요리점 등에서의 호화, 길거리에서의 추태(醉態) 등이 때로는 여전합니다. 또한 명우기극(名優奇劇)에 의한 찰나적인 향락이 유행하는 풍조가 있는 등 아직도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교정과 천선(遷善)¹⁷⁾은 원칙적으로 국민총력운동 등 교화수단에 의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상당한 수단을 다한 다음의 안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의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에 의해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촉진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17) 나쁜 성정을 고쳐서 바로잡음.

4. 노무의무제의 확립

최근에 노동력 부족의 목소리를 전해 듣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 농촌에서는 땅이 비옥하지 않은 전답 또는 물대기 나쁜 논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소작인이 자진하여 경작을 사퇴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조선 농업의 실태에 비추어 식량생산을 확충하는 데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유산계급 또는 도시생활자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노동을 비하하는 폐습을 고치지 않아 지역적으로도 노동력 편중 현상은 여전합니다. 미증유의 비상시국하에서 이러한 구태적인 상태는 언제까지나 허용될 일이 아닙니다. 새로 국민적 인생관, 즉 국민적 신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도 차제에 단호히 국민개로제(國民皆勞制), 즉 노동의무제를 마련하여 황국신민 남자로서 일정 연령 이상의 자는 몇 세까지는 원칙적으로 노무에 복무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강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래 기술자에 대한 등록제가 마련되어 국민징용의 경우에 대한 대비로서는 충분한 것 같지만, 현재의 정세로는 총후의 생산확충 또한 국가징용에 대한 커다란 대비로서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문제로서는 입법기술적 입장에서 조선만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의 가부, 혹은 또 가령 만든다고 해도 병역과의 관계, 종사시킬 노무의 범위 내지 그에 대한 설비 등 연구를 요하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것이지만, 일대 결단을 하여 획기적 사업으로서 속히 기초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총친화(總親和), 총협력(總協力)에의 노력

비상시의 국책 수행이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하며, 직접 그것의 수행을 담당하는 제일선 관공리가 때에 따라 엄격한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중과 직접 접하는 이들 관공리가 간절하고 정중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민 모두가 아직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물가의 조절, 물자와 노무의 통제 등과 관련한 접촉이 지극히 빈번한 현재 상황에 비추어, 또 여론의 추세에 비추어 총친화, 총협력을 위해 관민 모두 한층 더 정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전 : 烏川橋源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9) 참의 김상희(豊原以尙)

사변 발생 이래 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국민총력운동의 순조로운 진전에 의해 반도 민중의 시국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열의는 눈물겨울 정도로 고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곤란도 어떠한 희생도 국책이 명하는 간난 극복을 위해서라면 자진하여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반도 민중, 특히 농촌 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이 점은 깊이 경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민도가 낮기 때문에 때때로 상의(上意)를 곡해하거나 혹은 회의를 품고, 쓸데없이 희생과 곤란을 기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은 극히 유감입니다. 다음에 유의할 사항을 열거합니다.

1. 상의하달, 하정상통(下情上通)의 철저

상의하달과 하정상통은 위정자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바로서 국민총력운동의 핵심 또한 실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민도가 낮아서 상의의 주지철저를 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가, 근자에 신체제 수립에 따른 제일선 지도자의 사무가 지극히 복잡다단하여, 자칫하면 지도방법에 간절함과 정중함이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인적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제일선 관리의 자질이 저하되어 지도자 자신조차 상의를 곡해하거나 혹은 쓸데없이 신기한 것을 즐겨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목소리, 백성의 호소 내용 여하를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국을 잘 알지 못하는 못된 놈이나 국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나쁜 놈으로 배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로 국책이 명하는 것, 그리고 국책 수행상 필요하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어떠한 고난도 참아야 하며, 또 만약 그에 대해 이의를 달거나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는 극형에 처해도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도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즉흥적인 착상을 시국에 편승시켜 실정을 참작하지 않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모처럼 싹튼 시국 인식을 그르치고, 또 인심을 지치게 할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지방단위 물자통제의 재검토

물자통제의 주요 목적은 물자의 편중을 막고 수요의 합리화를 꾀하여, 최소한의 물자로 최대의 이용가치를 발휘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단위로 이를 시행할 때, 갑 지방에는 공급과잉을 초래하는데 을 지방에는 공급이 부족한 물자 편중의 경향이 노

정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갑 지방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생산자의 곤란을, 을 지방에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자의 고통을 초래하여 가장 가증스러운 암거래와 매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또 당연히 버려야 할 개인주의로 되돌아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면은 면, 군은 군, 도는 도의 수요만 충족시키면 충분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의가 확대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단위의 통제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통제의 합리화

자유경제를 버려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단순히 통제를 위한 통제로 흐르는 것은 도리어 물자수급의 정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민심을 위축시키는 결과에 빠지기 쉽다. 예를 들어 산에서 딸감을 통제하여 한 짐, 한 다발의 딸감도 소정의 절차와 소정 기관을 경유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인접지로의 반출을 목적으로 하는 채소 생산지에서 해당 지역 내의 수요를 충당시킨 후가 아니면 인접지로의 반출을 정지시켜 상품에 흠이 생기고 팔 기회를 놓쳐 업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는 것은 크게 고려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배급기관의 개선

자유경제에서 상업은 일부의 특수 업종이 아닌 한 마음대로 개업할 수 있어서 상재(商才)·상략(商略) 여하에 따라 업적이 좌우되고 성쇠가 갈리지만, 통제경제에서 배급업은 임의 개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재·상략이 필요 없고 인기 여하를 고려하지 않아도 업적 및 이윤 수득에 아무런 영향도 없기 때문에 이권화되고 횡포해지기 쉬운데, 실제로 이런 징후가 없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제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 또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신체제를 잘 이해하고 구가하도록 하기 위해 업자의 지정 및 승인은 물론, 일상의 사업 상태에 세심한 주의와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시국 자재의 증산 철저

우리 반도가 병참기지로서 부가받은 사명과 직책은 실로 중대합니다. 반도 민중이 황국신민으로서의 직책을 완수하고 국은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이 부가된 사명과 직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당국은 이 점에 깊이 유의하고, 또 일반 민중은 이것을 잘 인

식하여 사변 발발 이래 각종 시국 자재의 증산은 실로 눈부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황국을 위해서는 목숨을 새털처럼 가볍게 여겨야 되는 이 중대한 때에, 굳이 재산의 양부·이윤의 후박·경영의 난이·자신의 불요와 불필요 등에 따라 직역봉공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반도 민중에 이런 무분별한 자가 있을 리가 없지만, 그래도 한층 더 시국자재의 증산에 박차를 가할 방법으로서

(1) 산금업자(産金業者)가 당국이 명하는 책임산출량을 산출한 후의 잉여산금(産金)은 해외무역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2) 면화, 마 등을 재배하는 자가 할당된 소정 수량을 수확하고도 아직 잉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자가용 목면, 마포 등을 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의 예를 마련하는 것은 일종의 패도에 속하지만 현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豊原以尙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20) 참의 방의석(方義錫)

1. 시국관계 법령의 주지 철저

시국의 장기화와 중대화, 국제 정세의 긴박화에 따라 그에 대처할 필요에서 국가 총동원법의 발동과 함께 물자, 자금, 노무 등 다방면에 걸쳐 각종 시국관계 법령이 발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법령은 모두가 즉시 일반 민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되지만, 일반 민중의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법령의 발포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와 의혹을 품고, 그로 인해 유언비어가 생기기 쉬워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시국관계 법령의 취지와 정신에 관해 통괄적으로 정리하여 문서 또는 강연, 좌담회 등을 통해서 철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물자배급통제의 강화와 수급의 원활화

물자의 배급 통제는 점차 궤도에 올라 실적 또한 볼 만한 것이 있지만, 아직도 원활하

지 못하여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생활에 불안을 가지게 하거나 혹은 생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량의 배급 통제를 일례로 들자면, 지방에 따라서는 아직 정백미를 상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잡곡조차 배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수송 배급을 원활하게 하여 생업의 조성과 생활의 안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집하 정미의 개선

종래 중소농가는 생산한 벼를 대체로 자기 집에서 정미하여 부산물인 왕겨나 썰미(碎米) 등은 식료, 가축의 사료, 비료, 연료 등으로 이용해 왔는데, 미곡통제로 인해 생산된 벼를 모두 공출시키기 때문에 부산물을 이용할 길이 없어 가축의 사료와 비료 등에 곤란을 느끼는 실정이므로, 지주에게는 현재대로 벼를 공출하도록 하고, 중소농가에게는 자가에서 정미하여 쌀을 공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전 : 方義錫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21) 참의 조병상(夏山茂)

1. 내선일체의 강화

(1) 조선인과 일본인 가운데는 이 정신에 반대하거나 비방하고, 혹은 면중복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선도책을 강구하는 한편, 탄압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를 위해 취할 수단으로서 우선 인사행정에 특히 유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2) 일본인에게 내선일체의 의의 및 그것을 반도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 까닭을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방책으로는 일본의 각계 요리를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방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특히 문부 당국과 절충하여 본 취지를 교과서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3) 반도인 중에 황국신민의 명예와 책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탄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모든 기회에 황국신민이 되기 위한 노력과 수양을 쌓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각종 청년운동에서는 그것을 핵심 정신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4) 현재 제도상의 조선인과 일본인 차별은 과도기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의 장애라는 점 또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그에 대한 선처에 유의하여서 현재 그 필요성이 없는 것은 폐지하고, 당분간 부득이한 것은 그 거리를 단축해주기 바랍니다.

2. 고도국방 국가체제의 확립

(1) 개개의 민중이 자기 직장에서 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성취하고 말겠다는 결의와 실행이 가장 필요합니다.

(2) 이와 같이 개개의 민중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 민중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도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도계급 또는 지도자가 될 만한 자에게 우선 확고부동한 신념과 추진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3) 실행 방법

① 종래는 이들을 인선할 때 소위 유력자계급에 중점을 둔 결과, 자칫하면 사람만 있고 실행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유력자에게만 편중하지 말고 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실행력을 지닌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기를 바랍니다(기성 인물 외에 크게 신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성인훈련소(가칭)의 설치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수용하여 세계의 대세,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시, 동아의 실제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책 등을 가르치는 학과를 습득시키는 한편, 심신 단련과 국민 총훈련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훈련을 부과하여 개개의 지도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건을 구비한 지도자가 되게 할 것.

(하략)

〈출전 : 夏山茂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22) 참의 김경진(金子典幹)

1. 황국 정신의 함양

사변 후 일반적으로 국가적 관념이 매우 현저해진 것은 진실로 기쁘기 이를 데 없지만, 정신적 방면에서 고찰하건대 더욱 노력을 하고 자각을 촉구할 필요를 통감하는 바입니다. 반도 방방곡곡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하여 궁성요배를 하고, 불충분한 일본어지만 황국신민 서사를 외우고 정오에는 황군의 무운장구와 호국영령에 대해 묵도를 바치는 등 진실로 아름다운 정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및 국민총력운동의 결정이라고 단언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한발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충성스런 황국신민으로서의 참된 혼을 가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는 심히 의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신에 충분히 유의하고 고찰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향후 가장 중대한 문제로는 정신적 융합을 굳게 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최선의 방법을 수립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 경제 통제와 민중 지도

현재 초비상시국에 즈음하여 당국은 제반 시설을 한층 더 전시태세에 통합시키고, 고도국방국가 완수를 목적으로 재정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국민경제의 유지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근본방침으로 삼아 생산력을 확충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서 그 노고에 크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고도국방국가의 근간은 국민경제력의 증진에 있습니다. 동아공영을 목표로 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려면 종래의 경제기구 및 그 운영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가할 필요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계획은 필연적으로 통합적이 되고 종합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위정자로서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덕성을 고려하지 않고 혹은 우리 경제계의 실정을 무시하고, 또 너무나 민도에 맞지 않는 조치 및 태도는 어디까지나 삼가주기 바랍니다. 또 통제경제의 발달에 따라 위정 당국의 지도력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종사하는 관공리가 민간경제를 지도할 때는 모두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간절하고 정중하며 신속하게 그것을 지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국가가 위급한 시기에 처하여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애국적 결의에 의거하여 상하일치·만민(萬民)의 익찬(翼贊)¹⁸⁾의 실질을 거두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

기 때문입니다.

3. 저물가정책과 생산확충

전시경제하에서 저물가정책 및 생산확충정책은 모두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상적으로 일률적으로 시비를 논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저물가와 생산확충이 언제나 마찰을 일으켜, 처음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력·자재·수송·비료 등의 부족으로 인해 생산확충을 아무리 도모해도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토지, 자료, 노동력을 모두 자기 것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것의 가격을 싸게 매기면 단가를 내릴 수 있지만, 반면 자료를 구입하고 노동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보다 싸게 생산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저물가로 생산확충이 불가능한 중요 원인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물가의 인상을 통해 생산확충을 도모하면, 한 번의 인상이 다음 인상을 유발하고 하나의 인상이 다른 물건의 인상을 요구하게 되어, 전면적으로 물가의 악순환에 빠져 저물가정책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 사이의 조화를 잘 유지하면서 타개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신중히 유의하여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중소농업자의 보호

근자에 중소상공업자에 대해 각종 보호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지만, 국민이 생활하는 데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은 농산물이 비교적 저렴하여 수지를 맞추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생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산하는 미곡은 현재의 다른 물가에 비해 가장 싸고, 공정가격 혹은 구매에 대한 검사와 기타 일손부족으로 인한 당국의 대금 지불 지연 등 불편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격 이하로 투매(投賣)하고, 기타 생활필수품은 모두가 공정가격이 비교적 비싸고 게다가 구입도 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엄청난 고가로 암거래를 하는 등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다른 물가와와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미곡공정가의 인상 혹은 장려비의 지급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 필수품을 적정가격으로 배급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중소농민은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전 : 金子典幹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8) 잘 도와서 인도함.

23) 참의 최재엽(高山在燁)

일중전쟁 발발 이래 우리 반도의 2,300만 민중은 완전히 황도정신에 귀일하여 시국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견지하고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을 체현하여, 내선일체 사변 처리를 위해 견인지구, 진충보국의 실질을 올리고, 특히 제국의 병참기지인 반도의 특종 사명을 떠맡아 생산확충, 충후 후원, 저축 보국에 한 뜻으로 자신의 직분에 응하여 직역봉공의 정성을 바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특히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확립, 교육제도의 쇄신, 창씨의 실시 등에 의해 황국신민이 되는 은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더없는 영광으로서 황은의 무한함과 총독정치의 시정에 감사하면서 오로지 성업 완수를 위해 정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히 비견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확충 계획의 적지적중주의와 지도의 통일

전시하에서 식량 확보가 긴급함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만, 증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위 적지주의에 따라 계획해야 하며, 획일적 계획은 피해야 합니다. 또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상호 연락을 긴밀히 하여 지도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증산 품종마다 담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담당지도자가 자신의 담당품목의 장려에 급급한 나머지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 때문에 농민은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여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농민의 불만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증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도의 통일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급 통제의 운영 개선

국제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경제 통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티켓제도에 의해 배급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면포·속버선·학생 아동의 고무운동화 등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반 민중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배는 대중의 요망이므로 급히 적당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민총력운동의 철저

시국의 중대화에 따라 점차 민중의 인식이 심화되어 국민총력운동은 드디어 궤도에 올랐지만, 아직 활발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입니다. 상부에서 연맹간부 등의

기구를 정비하고 있지만, 제일선에서 직접 민중에 접하여 지도를 행하는 읍·면의 진용이 비교적 빈약한 데 기인하므로, 그것의 강화는 이 운동의 성패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전 : 高山在燁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24) 참의 김사연(金思演)

성전 아래 동아공영권 확립의 대사업 완수 및 긴박한 현재 국제 정세에 대처하여, 당국에서 내선일체, 고도국방 국가체제의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반도 2천 3백만 동포가 모두 마음 든든한 바이지만, 현재 민정에 대해서 시정상 특히 유의할 사항에 대해 답합니다.

1. 중등학교 이상에서 내선(內鮮) 공학

한 집안으로 온 세계를 통일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는 성덕은 이미 일중전쟁을 계기로 하여 반도 2천 3백만 동포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조선교육령개정 및 민사령개정에 의한 씨(氏)제도 실시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또 형식적으로도 황국국민으로서 내용과 외관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의 내선일체란 모두 이론을 뛰어넘은 현실의 사실이며, 그것을 조성하는 방책으로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내선학교의 구별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등학교에서는 일본인 학교와 반도인 학교가 확연히 구별되어 있어서 극히 일부의 반도인만이 일본인 중학교에 입학할 뿐, 일본인 중에 반도인 중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실정입니다. 이런 제도는 쓸데없이 반도인의 감정을 해칠 뿐이며 또 내선일체의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진실로 내선일체를 실천적으로 만들고, 또 반도인은 일본인의 습속에 익숙하도록 하고 일본인은 반도의 미풍양속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일상생활 필수품의 배급 원활

현 시국하에서 일상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주의 깊게 생산확충을 꾀하지만

여러 가지 자재의 결핍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반 민중은 현저한 배급 감소를 초래했고, 수급관계는 파행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하층계급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위협받는 일이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중산계급 이상은 장기전으로 인한 물자의 결핍을 예상하고 의류, 신발, 철제품 등을 상당히 준비했지만, 무산계급은 하루하루의 생활 때문에 이런 물건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현재에는 '인조섬유'를 착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격심한 노동력에 반비례하여 내구력은 현저하게 취약하므로 쓸데없이 부담을 과중시켜 생활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하층계급에는 특별히 내구성이 강한 노동복 기지를 배급하여 노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 일반 식료품, 특히 양식은 조선 전체에 강력한 배급제를 실시하여 지방적 편중을 제거하고 배분의 균등을 수립하며, 또 주택의 경우도 건축자재의 통제를 완화하고 주택의 건축을 조성해서 주택난을 배제하여, 안심하고 총후의 임무를 완수하게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3. 배급 통제 조합의 개선과 그 취지의 철저

각종 배급조합이 난립되어 있는 현재, 연락과 통제의 결여로 말미암아 종종 사무 처리상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폐단은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통제의 정신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안의 완급과 경중을 잘못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서 법령을 주지하는 데 중요한 조선 총독부 관보조차 구독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대만조차도 관보 발행 부수는 오만 부라고 하는데, 조선은 고작 1만 6천~7천 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법령의 주지 보급은 바라기 힘들니, 적절하게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마니 생산확충의 합리화

고도국방국가건설의 일조로 농촌에서 가마니 생산확충을 장려하는 것은 참으로 지당한 일로서, 반도 부녀자의 가정에서의 봉공으로서 가장 적절한 노무봉사입니다.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제조하라는 시달이 시기를 놓쳐, 지분을 이는 데 사용한 후에 당국에서 제조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분을 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짚을 벗겨서 가마니를 제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는 단지 농민의 생활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실로 당국에 대한 불평을 조성하는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마니 제조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산보국에 매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됩니다.

〈출전 : 金思演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25) 참의 이병길(李丙吉)

긴박한 현재의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심각해져 가는 이때에 우리 2,300만의 민중은 내선일체의 고도국방 국가체제의 확립에 상하남녀를 불문하고 들고 일어나 일치협력의 국민총력의 발휘에 매진하고 당국자의 지도를 받아서 자진자강(自進自強)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국하에서 물자·자금·노무 등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일반 민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자문하여 그 대책을 수립해 가는 당국의 의도는 감격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이 답하고자 합니다.

1. 물자 배급의 원활

현재 물자 통제의 강화에 따라서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 중소기업자이고, 반면에 대상 공업자는 당국의 더 엄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점매석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가령 물자 배급이 높은 평상시와 비교해서 6할 높게 요구하는 일반 상공업자도 그 실제 배급이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여서 물자의 회전이 나뻑니다. 일반 업자는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악덕의 대상공업자의 불법을 근절시킴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에 대한 물자의 원활한 배급을 요구한다고 판단됩니다.

2. 전표(切符)제도의 강화

일반 가정생활의 필수품은 모두 전표제도로써 각 정회(町會)를 통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정회는 일반 민중생활에 직속하는 중요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조직을 한층 강화하고 확충함과 동시에 근무자로 유자격자를 채용해서 일반 정민(町民)에 대한 전표의 배급을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할 것을 요망합니다.

3. 고리대금업자의 근절

저리의 자본대부의 폐쇄 때문에 중산계급 이하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기회를 엿보아 악덕 대금업자 등은 비밀리에 고리대금을 주어 폭리를 탐합니다. 중산계급 이하의 가정은 점점 위협받는 형상입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어느 정도는 저리자금융통의 방법을 강구해서 국가의 중견 중산계급의 구제책을 수립하는 한편 고리대금업자의 근절을 꾀해주기를 요망합니다.

4. 벼 대금 지불방법의 완화

농촌에서 벼를 정부로부터 살 때에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금융정책상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농촌에서 소득의 전부를 차지하는 벼 대금의 지불이 꽤 늦어지는 것은 결국 농촌금융을 폐색시키는 데 이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민은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얻기 위해 암거래를 하거나 고리대금을 빌리는 등 농촌경제상 진실로 유감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향후는 가능한 한 벼 대금 지불 방법을 완화하여 농민생활의 안정을 꾀해주기를 요망합니다.

5. 농촌 노동력의 반출 방지

노무 통제 강화의 결과 농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군용 이외의 번창한 산업 방면으로 유출되는 노동력은 크게 이를 통제 강화하고 총후 국민의 가장 긴급한 식량을 충실하게 하는 데 충당하여 일반 농산물증산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촌자를 억제하고, 특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집을 떠나서 일할 수 없도록 그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전 : 李丙吉 參議 『第22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1년〉

13. 1942년 6월 29~30일, 제23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1) 참의 신석린(平林麟四郎)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조(聖詔)를 봉체(奉體)하며, 역대 총독의 내선일체의 시정은 반도 민중이 밤낮없이 희망하는 바이지만, 반도인의 지식과 생활, 재산의 정도는 내지인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당국에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반도 민중의 지식과 재산, 생활의 정도에 대해서는 제반 시설 중에서도 특별한 심사(審査)와 고려를 해주심이 행정상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번 고이소(小磯) 총독 각하께서 부임 초에 발표하신 훈시와 유고(諭告)의 취지를 삼가 듣건대, 우리 제국의 국체의 본의(本義)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은 반도 민중이 대단히 기뻐하며 봉찬(奉讚)하는 바입니다.

저 흉악한 영국과 미국은 도의(道義)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 동양에 대한 침략탐학(侵略貪虐)이 끊이지 않아, 참고 또 참아온 우리 제국도 끝내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격멸의 철퇴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선전(宣戰)의 대조(大詔)가 일단 내리자 우리의 충용한 장사가 분전역투하여 전쟁이 개시된 이래 아직 반년도 안돼서 연전연승으로 천하를 석권하고 영·미의 흥폭함을 여지없이 섬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도의로써 흥폭함을 응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전의 필승은 천리(天理)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도의정치는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 도의에 따른 전쟁은 천하무적임은 웬언할 필요도 없는 바, 황국(皇國)을 위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삼가 만세를 봉창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자문사항에 대한 우견(愚見)을 다음과 같이 답신합니다.

1. 현재 경신숭조는(敬神崇祖)를 행하고 있지만 이를 더한층 격려하고 일본정신을 양양할 것.
2. 교육비 예산을 증가하여 학교 증설을 꾀하고 입학시험을 완화하여 황국신민의 자격을 취득하는 자가 많도록 할 것.
3. 징병제도 실시 준비기간인 1944년도까지 국어¹⁹⁾ 훈련을 충분하고 철저히 하여 훗날 부름을 받아 전장에 임할 경우에 착오 없도록 유의할 것.
4. 식량의 통제와 배급을 완화할 것.

19) 일본어를 뜻함.

5. 반도 상업가 가운데 다수의 청년을 남방제도에 파견하여 그 지방의 산물을 시찰 연구토록 하고, 동시에 무역교환 등을 편리하고 쉽게 하는 것은 총독부가 이미 정한 방침이지만 속히 이를 실시할 것.

〈출전 : 平林麟四郎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2) 참의 한규복(井垣圭復)

1. 내선 무차별화의 촉진

시국하 반도 2,400만 민중은 더욱 더 명실공히 진실한 황국신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금일에는 모든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공공의 대의를 살려 만세일계의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우러러 받들며, 만민보익(萬民輔翼)의 신절(臣節)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황운부익(皇運扶翼)의 끝없는 영광에 감격하여 대어심(大御心)에 귀일하는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러한 민정에 비추어볼 때 일시동인의 성지를 봉대하고, 빠르게 내선(內鮮) 무차별의 경지에까지 나아가도록 제도상 각론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제시행위원회(縣制施行委員會) 설치, 호적법통일연구위원회(戶籍法統一研究委員會) 설치 등과 같은 것입니다.

2. 중추원제도의 개선

중추원제도를 개선하여 현 참의 이외에 내선인을 통하여 널리 각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견층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상당다수 임용하고, 중추원의 기구를 강화하여 총독정치(總督政治)의 참된 익찬기관(翼贊機關)으로서 청신발자성(淸新潑刺性)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참의들을 각각 적재적소에 선발하여 총독부 각 국부별 위원에 소속시켜 행정상 필요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함은 물론 관리(官吏) 및 하급기관의 운영에 대한 감찰 등도 맡겨 전시하 총립(總立)·총구(總構)·총동원 태세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익찬정치회(翼贊政治會)와 각성위원회(各省委員會)의 일부와 같은 것입니다.

3. 농업국책영단(農業國策營團)의 조직

농촌, 농업, 농민문제는 국가의 존재 및 발전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시정상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써

- 1) 합리적인 식량정책의 수립
- 2) 적정한 농가 및 농지의 창정
- 3) 분촌분향(分村分鄉)에 따른 농촌인구의 재편성
- 4) 신속한 경지정리 및 농축산물의 적종(適種) 배치
- 5) 한 농가경제의 갱생보다도 한 부락의 경제갱생안 수립

등의 농촌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국책영단'을 조직하여 일거에 치민의 대본을 확립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전 : 井垣圭復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3) 참의 윤갑병(平沼秀雄)

1. 일한합방의 대의(大義) 철저와 황민화의 약진

생각건대 일한합방은 실로 대동아 건설의 대전제로서 30여년 이래 성려굉원(聖慮宏遠),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역대 총독의 치적 또한 크게 양양되어, 이제 시정의 각 부면은 예전의 모습을 일신하였으며, 반도 동포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은 점차 철저해지고, 내선일체의 결실이 착착 거양되어 가고 있음은 실로 모두가 경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하 황국(皇國) 미증유의 중대 시국에 처한 황국신민으로서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반도동포는 아직 그 이상(理想)과는 먼 느낌이 듭니다.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불인(不仁)을 품고서 겉으로는 충량한 신민을 가장하지만 이른바 시국편승적 도배가 향간에 그 자취를 감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제국의 전례 없던 경륜과 위대한 역사의 세찬 물줄기 앞에서, 일일이 들어서 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지만, 세상의 걱정거리는 작은 틈새에서 생겨나고 겉을 덧칠하지 않고서는 내외의 일치를 볼 수 없으며, 언변이 뛰어나 백 마디 말을 놀리지만

다만 구관조의 비웃음을 면키 어려운 자가 많습니다. 이는 실로 반도 동포의 정신지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로써, 장래 각하께서 시정상 특별히 유의할 점도 오로지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천황귀일의 대의에 기초하여 일한합방의 진의를 명확히 하여 내선일체의 근본을 철저히 파악하고, 진실로 국체의 본의에 철저히 하고 황도이념의 전면적 함양에 힘써서 반도 모든 동포로 하여금 속히 황국신민의 실질을 완비토록 하는 것에 시정의 중심을 둘 것을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부족하나마 제 소견을 개진하여 답신합니다.

〈출전 : 平沼秀雄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4) 참의 고원훈(高元勳)

1. 조선인 황민화운동의 조속한 달성과 국체본의에 투철한 시설 고려

사변 이래 조선인은 사상적으로 일대 변화를 가져와 일본인이 다된 듯이 황민 완성의 영광과 긍지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징병제도 실시와 의무교육 실시를 보게 된 바에는 이제 겨우 중의원의원선거법의 시행만이 남아있을 뿐 거의 내선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조선인을 내지인과 완전히 동일한 일본인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일대 의무임을 알고서, 언어·풍속·습관 등의 생활양식 등도 점차 내지인에 동화 합류토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민의식, 국가관념을 내지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힘껏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당국에서는 너그러운 자애의 덕정(德政)을 베풀어 하루 빨리 그리고 용이하게 그 열성을 달성시키도록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내선(內鮮) 간에 제도상 차이를 둔 사항은 점차 개폐 통일하고, 내선간에 법역(法域)의 차이를 고쳐서 전역일법주의(全域一法主義)를 채택하면, 먼저 신분에 관한 법령이 통일되어서 종래 민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선의 관습에 의한 조선인의 친족상속 관계 사항은 민법 및 그 외의 부속법령에 따르게 되고 호적법 등도 일원화됩니다. 그 결과 오사카(大阪)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내지에 본적을 가지고, 경성에 거주하는 내지인은 조선으로 호적을 옮길 수 있으며, 징병검사, 결혼 또는 출생신고, 기타 신분관계 법률행위는 모두 일원적으로 간소화됩니다. 동시에 조선

인의 황민화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어 내지 동포와 실로 무차별 일체의 경지에 놓이게 되고, 2,400만의 새로이 완성된 황민의 환희와 감격은 비할 바 없고, 국가 100년을 위해서도 큰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국체본의를 투철하게 함에 있어서는 지난 18일의 유고(諭告)에서 조야(朝野)²⁰⁾가 아직도 충분치 못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 백성들의 현상이 그러함을 인정한다고 제시하셨습니다. 반도 백성인 우리들은 실로 황송할 따름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개국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교육칙어에 의해 그 자체가 아주 명백하고, 만대불변의 천칙(天則)입니다. 차제에 교학쇄신을 더 한층 철저히 하고 국체명징을 중심으로 국민사상을 함양하며, 일상생활은 오직 신을 통해 현현(顯現)토록 하여 도의조선(道義朝鮮)의 확립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전 : 高元勳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5) 참의 홍종국(德山善彦)

1. 반도부인 교양지도 기관의 적극적 시설

반도의 부인은 온양정숙한 부덕(婦德)은 물론 근면역행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한 가정을 유지 정리하는 사람이 매우 적고, 따라서 근로에 비해 효과가 따르지 않으며, 절약을 하더라도 예상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가끔 모순을 면치 못합니다. 또한 사회사정에 어둡고, 특히 조선동포 총후봉공(銃後奉公)의 성심이 갑자기 양양되어, 내선인의 마음이 서로 통합되고 피와 피로 결합된 실정에 의해, 다년간 염원하고 요망하던 징병제를 실시하고 1944년도부터 이를 징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미래의 병사를 길러야 하는 반도여성의 사명은 매우 중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여성과 내지여성의 덕성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상당히 현격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의 남성이 모두 대군(大君)의 방패인 이상, 그 어머니는 우선 자신을 연성하여 전에 없는 황민으로서의 덕을 갖춰야 합니다. 어머니의 덕은 곧 자식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녀자의 교양지도는 무엇보다 급무로써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20) 조정(朝廷)과 민간(民間).

2. 일반 민중에 대한 군인정신의 배양

국방은 국민이 분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없고, 동시에 국민의 강고한 국방관념이 없으면 국가의 번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각자 자신의 직무를 위해서라도 언제라도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군인정신이 필요하며, 이는 인간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인간은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배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무(尙武)의 관념이 부족한 반도인, 앞으로 징병될 청소년을 기르는 부모형제, 특히 어머니의 자각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선 가정의 정신생활부터 새롭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지인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죽어 신이 된다는 신념은 하나의 종교가 되어, 각 가정에는 신단이 있어서 출정한 아들이 보고 싶을 때 신단 앞에서 인간과 신이 아주 가까이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가정에서도 상무의 관념을 이와 같이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가정에 내지식의 신단을 그냥 가져다가 받들기보다도 먼저 정신생활을 지배하는 종교를 상무의 정신으로까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물자배급 기구 및 방법의 개선

각종 물자배급도 보면 공평을 결여할 염려가 없지 않은데, 특히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종래 식량배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걱정과 결핍으로 부대껴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총독과 총감 양 각하를 맞이함에 있어서, 착임 전부터 일반이 염원하는 소리는 양곡의 완화에 있었으므로 총독 각하께서는 부산(釜山)에서 “요는 반도 민중이 먹을 것이 선결이다. 자신은 결코 먹지 않는다”고 단언하시고, 착임 당일은 조선에 거주하는 내선인에 대하여 “생활필수품의 퍽박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면 중대한 문제이다. 내지에 협력하여 물자를 보내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 탓에 조선이 퍽박을 받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시달하셨고, 이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자 도시와 시골을 통하여 민중의 환희는 끝이 없을 따름이고, 평소의 걱정과 퍽박도 근원으로 부터 일소되었습니다. 여하튼 종래의 방법에는 다소 결함이 있어서 자연 원활함이 결여되었다면, 그 개정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4. 상의하달의 철저

대다수의 황국신민은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여 민도가 낮기 때문에 자연히 시대에 뒤쳐지고 모처럼의 선정방침, 전시하 각종시설과 장려시설도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해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기현상을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941년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제 소견을 서면으로 답신했던 적이 있으니 참고하신 뒤 무엇보다도 상의하달의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전 : 德山善彦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6) 참의 김연수(金季洙)

지금 황국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성지(聖旨)를 봉체(奉體)하여 대동아 공존공영의 도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라의 총력을 다해 성전의 목적을 완수하고자 일로 매진함으로써 능위(稜威)²¹⁾의 지도 아래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시에 건설적 공작도 한걸음 한걸음 활발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이때 황국의 일익인 반도의 책무를 점점 중대성을 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도 민중은 그 책임이 중대함을 자각하고 전력을 다해 진흥보국으로써 황운부익(皇運扶翼)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견을 진술하여 자문에 대해 답신하고자 합니다.

1. 반도 민중의 자질과 실력의 향상 충실

시국하 반도의 책무가 점점 중대해지고 있는 금일,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반도 민중의 자질의 실력향상을 충실케 하고, 황국의 융창한 발전에 기여 공헌하여, 천양무궁의 황운부익하는 황민으로서 부끄럼이 없도록 완성하는 것입니다. 대저 반도 민중은 과거 이조시대 수 백년 동안 비정악폐(秕政惡弊) 아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히 피폐쇠미(疲弊衰微)하고, 특히 정신적 퇴폐와 도덕적 부패가 매우 극심한 가운데 성장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병합의 성조(聖詔)에 의해 황택(皇澤)을 입게 되어 신생의 길을 열었지만, 한때 과거의 타성과 통합에 대한 무이해는 대다수 민중을 무관심한 상태에 빠뜨렸으며,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실로 우려할만한 일종의 허무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위정당국의 노력과 교육보급으로 통치정신에 대한 이해와 민중의 자기반성이 점차 향상되고, 황민으로서의 자각의 싹을 틔울 즈음 만주사변 및 지나사변은 민중의 이와 같

21) 존엄한 위세.

은 자각을 더욱 더 강화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반도 민중은 진정한 황민으로 다시 태어날 각오를 견지하고, 황국에 지성봉공(至誠奉公)하는데 긍지를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정신적 도덕적 퇴폐에 침윤되어 온 반도 민중을 인간적으로 완전히 구제하려면 정신적 교양을 양양하고 도덕적 관념을 강화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정신의 체득, 황도정신의 삼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신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일종에 정신적 방랑자인 반도 민중을 인간적으로 구제하여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에 의하여 황민으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2. 황도정신의 철저와 국민적 정조의 함양

반도 민중으로서 완전히 황도정신을 체득하고, 황국신민으로서 손색없는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은 한 사람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보급철저를 꾀하고 차세대 황민의 육성에 힘을 기울일 것이 요구됩니다. 총독부에서도 머지않아 의무교육제도를 반포하고, 황민개학(皇民皆學)의 실현을 기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의교육제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능하면 교육보급의 철저 방도를 강구하여 반도 황민의 자질향상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후 교육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식편중의 폐단을 교정하여 정의(情意)의 함양에 크게 노력함과 동시에 진정한 교육자를 연성(鍊成)하는 일입니다. 황도정신의 체득실행은 국민적 정조의 함양에 의해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데, 교육자 자신이 황도정신에 철저하고 차세대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이 요구됩니다.

3. 능력자에 대한 국가사무의 취직 알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황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를 주도록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업무에 복무하여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공공적 업무이거나 사적 기업이거나를 불문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므로, 긴장된 정신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황민으로서의 자량과 희열과 유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황민으로서의 자각과 책임감 같은 것도 일정한 직무 또는 사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그 느낌이 특별히 더 농후하고, 또한 책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느낌의 정도가 더 높으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번 징병제도 실시가 결정되자 일반 민중은 감결과 희열로 그것을 환영했다는 것은 곧 저간에 소식을

말해주는 것으로, 징병에 복무할 수 있다는 것에 황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새로이 하고, 황민이란 의식을 한결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 할 수 있는 자에게 직무와 사업을 주고, 부담능력이 있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능력의 향상에 따라 책임 있는 직무와 일자리를 주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과 정열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상 두세 가지 소견을 들어 답신합니다.

〈출전 : 金季洙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7) 참의 김화준(金海化俊)

현하 시국에 따른 시정방침은 그 특수성에 비추어 거국일치의 총력을 경주하고 선처하여 상당한 결과를 거두고 있으니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지만 현하 반도의 민정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은 장래 시정상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체본의(國體本義)의 투철

신정시행 이래 30여 년간 역대 위정당국의 열렬한 지도계몽에 의해 또한 농진(農振)·정동(精動) 내지 총력운동에 의해 일반 민중에게 상당한 국체관념을 명징하였지만 이를 신봉(神棚) 봉안, 신사(神社)·신사(神祠) 참배, 궁성요배, 국기계양 등 형식상으로 보나 장차 정신상으로 보나 아직 투철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차제에 서둘러 집집마다 신봉 봉안 및 1면 1곳 이상의 신사(神社)·신사(神祠) 건립을 결정하여 밤낮으로 참배함은 물론 춘추(春秋)의 예제일(例祭日)에는 면민이 모두 참열 봉사하고, 동시에 중요사항의 결의 여행(勵行)을 합의하며,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상박(相撲)²²⁾·축국(蹴鞠)·농악 또는 기타 신전(神前) 체육경기회를 개최함으로써 면내를 모두 일체로 융화시키고, 내선일체는 물론 진실로 정신적 황국신민화하여 국체본의의 침투에 이르도록 했으면 합니다.

22) 씨름.

2. 시국인식의 철저

시국의 인식에 대해서는 사변 이래 각종 종합지도에 의해 철저를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중 가운데는 아직 그 인식이 부족하고, 더욱이 각종 지도 실행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각을 촉구할 겨를이 없이 실행을 서두른 관계로 자각이 없이 다만 실시함에 그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대동아전쟁의 원인 및 국력 등을 지리·역사와 종합하고 잘 조화시키고, 아주 간명한 설명을 삽입한 도표 같은 것을 조제 배부하여, 전쟁의 원인 및 국력 등을 아주 명백하게 일반 빈민계급에게까지 철저히 주지시키고, 전승의 신념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그에 의해서 분발 노력하여 후방의 보호를 견고하게 하는 한편 수시로 전첩(戰捷)의 상황을 신문·방송·강연 및 주지판(周知板)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킴으로써 시국을 충분히 인식시키는데 철저했으면 합니다.

3. 청소년훈련의 철저

시국하 관민상하 혼연일체가 되어 성전의 목적을 완수하는데 용왕매진(勇往邁進)해야 할 시기에, 국가의 원천인 청소년의 의기 그것은 참으로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유의도식(遊衣徒食)하는 청소년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매우 우려해 마지않는 바로써 차제에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유한훈련(流汗訓練)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유의도식하는 도배를 일소하여 국가에 유용한 인물을 양성시켰으면 합니다.
(하략)

〈출전 : 金海化俊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8) 참의 김태집(金井泰濶)

1. 국체본의의 투철

반도 민중의 머리에 황국신민의 정신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있을 테지만 단순한 형식으로는 그 효과가 의심스러우니, 형식에 흐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즉 어떻게 황국신민의 정신을 체득해야 할지를 머리에 침투시켜서 급속히 황민임을 자각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존중해야 할 교육직어의 의미를 충분히 체득케 하고, 국체본의에 투철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민입니다. 요즘은 황민연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형식에 흐르기 쉬운데, 그 가운데서도 황국신민의 서사 낭송에 있어서 국어²³⁾ 미해득자는 언문²⁴⁾으로 발음하는 데 그치고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것은 폐해일 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교육자 특히 국어 미해득자에 대해서 점차 국어상용을 장려하는 것이 황민연성에 일조할 수 있을 테지만, 국체본의를 투철히 하는 데는 국어 미해득자의 경우 다른 방법을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실질주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데 있다고 사료되므로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체본의를 체득시켜서 황민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식량의 확보

시국하에서 국민의 식량확보가 총후봉공(銃後奉公)에 지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말이 필요 없는 바, 식료품의 생산장려는 적극적 조장과 확충을 꾀해야 할 긴급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식량이 결핍하다거나 국민의 보건 및 교육, 노력제공 특히 농민의 노력감쇄 등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자못 심대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와 시골을 불문하고 식량확보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인데, 특히 농촌의 식량은 장병의 탄약이라고도 할 만한 것으로, 바로 농민이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확보에 대해서는 깊이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떠한 관계에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묵묵히 생산한 농민의 식량미를 모두 공출하고, 심지어는 종자까지도 공출을 강요하여 마침내는 가까이해야 할 농경지를 내던지고 도시로 진출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식량미의 결핍으로 농작이 불가능해지거나 애써 생산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먹을 식량미라 생각할 수 없는 관계로 오히려 도시로 진출하여 먹을 것을 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한심하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탁상공론과 근거 불확실한 계산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요는 형식으로 치장된 실정에 입각한 관찰 아래에서 식량미를 확보하고, 나아가 농민의 최소한도의 자가용 식량미 확보를 장려해서 생산확충을 꾀함과 동시에 국가대계의 수립에 만유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전 : 金井泰湊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23) 일본어를 의미함.

24) 우리말을 의미함.

9) 참의 김원근(金海元根)

지나사변²⁵⁾의 장기화는 결국에 대동아전쟁을 가져왔다. 세기의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여 현지와 후방을 불문하고 천황의 위세 아래 충성을 다해 성업(聖業)에 매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2400만 반도의 민중도 더욱 더 황국신민의 은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음을 최대 영광으로 여기고, 이를 기회로 하여 반도에 부여된 특수한 사명을 완수한다는 염원을 불태우고 있으며, 또한 지도계급의 전문대중도 노심초사하며 진심으로 그 만전책에 전심(專心)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착착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때에 달리 제 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지방의 민도를 살펴 감히 제가 생각하는 바를 올리고자 합니다.

1. 징병제도에 대한 의무교육의 급시(急施)

여러 해 전부터 갈망해 온 조선인 징병제도의 실현은 반도 민중이 한결같이 모두가 경축해 마지않는 바이지만, 반면에 적령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미해독자이기 때문에 모처럼의 은정도 입을 없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해당자로서 실망을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 제도의 운영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바, 기존에 계획한 의무교육의 실시연도를 가능한 한 단축하고, 동시에 간이학교를 증설하여 계몽운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생산확충에 필요한 노동력의 보충

1) 현재의 실정

생산확충의 원동력은 농업 노동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토목노동 수요의 격증, 해외 노동자 알선 등으로 노동력에 대한 절박함이 극에 달한 현상입니다. 종전부터 힘써 실행하여 온 부녀자의 옥외노동은 아직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 노동부인 이외에는 동원 실적이 경미한 실정입니다.

2) 고려를 요하는 사항

종래부터 힘써 시행중인 부녀자 동원에 더 한층 철저를 기하고, 노농분담을 시켜 적극

25) 중일전쟁을 뜻함.

적인 출동을 촉진토록 해야 합니다.

3. 기업령에 따른 실업자 대책

1) 현재의 실정

서민 측에서 보자면, 종래에 다각적인 기업을 경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꾸려오던 업자들은 본 제도의 실시 이후 자연실업으로 전락한 사람이 다수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2) 고려를 필요로 하는 사항

본 제도에 의해 실업자가 된 사람은 전업(前業)에 복귀시키든가, 또는 실적의 유무를 묻지 말고 기업을 허가해주는 방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하략)

〈출전 : 金海元根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10) 참의 이종덕(江本鍾惠)

대동아전쟁하 반도의 실정은 매우 견실하고, 생명이 안전하다기보다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에 불타고 있으며, 고금에 유례없는 이번 국난을 극복하고자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추세와 역대 총독각하께서 베풀어주신 훌륭한 치적으로 이제 반도 동포는 앞서 실시한 창씨제도와 지원병제도, 앞으로 1944년도부터 실시할 징병제도 등으로 반도 동포도 일본국민의 최고의 영예를 얻었으며, 더욱이 일본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인 국방의 중임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선일체가 명실공히 구현되고 있는 시기인 시국하 민정에 비추어 장래 시정상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참고로 제 소견을 진술하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정신의 양양과 내선결혼의 장려

요점은 모두 정신문제에 귀일되므로 반도 동포로 하여금 일본정신을 파악토록 하고, 나아가 투철을 기하여 우선 경신(敬神)의 념(念)을 함양시키며, 신(神)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야합니다. 동시에 일본정신이 무엇인가도 근본적으로 주입시킬 것을 요하지만

형식에 얽매이는 일 없이 실질적으로 임하고, 이를 생활화하는 방법으로는 내선결혼의 적극적인 장려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선결혼 이는 내선일체의 구현에 가장 빠른 길이며, 반도 동포로 하여금 일본 정신을 파악토록 하고 부지불식간에 투철하게 되기에 이를 것임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 국어전해운동(國語全解運動)과 의무교육제도의 실시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는 징병제도 실시와 더불어 가장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징병 적령자 가운데 국어 미해득자가 많다는 것과 점차 징병에 응할 소년층의 문맹자 통계를 볼 때, 국어전해운동²⁶⁾과 함께 의무교육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일본정신의 투철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략)

〈출전 : 江本鍾惠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11) 참의 박지근(松山淸)

1. 육군특별지원병 훈련소의 확충과 징병에 대한 준비적 훈련

당국은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반도 민중으로 하여금 국가의 요청에 대해서는 여하한 사항, 여하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꺼이 그에 응하고, 성전(聖戰)의 목적인 대동아공영권 확립과 장차 세계 신질서 건설에 있어서 제국의 일익이 되어 폐하의 방패로서 일사불공(一死奉公)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 성전의 목적 완수에 일로매진토록 하며, 황국신민으로서의 최고 의무를 짊어질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국은 차체에 육군특별지원병을 지명하는 자는 전부 채용하고, 또한 징병제도 실시에 따른 적령자는 지금부터 준비적 훈련을 시킴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 일본어를 완전히 이해하자는 운동.

2. 국민교육의 철저

시정(施政) 전 조선의 서당교육에서 불과 33년 사이에 초등, 중등, 전문, 대학교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실로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 통치의 최고 목표인 황국신민화를 꾀함에는 국민교육의 보급철저 여하에 달려있다고 단언합니다. 현하 국민학교의 입학률은 입학 희망 아동의 반수도 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장래 제국의 2세 국민으로서 일해야 할 유위유능한 인재를 낚오시킨다는 것은 본인들의 불행임은 물론 국가의 일대 손실입니다. 같은 국민이면서 한쪽은 교육을 받은 훌륭한 황국국민이 되고, 한쪽은 무교육자로서 행동한다면 비국민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한단 말입니까. 실로 동정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당국은 이와 같은 현실을 잘 헤아려서 시국관계 이외의 사업은 일시 희생하더라도 속히 국민교육의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하략)

〈출전 : 松山清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12) 참의 차남진(德山南鎭)

지나사변에서 대동아전쟁으로 이행한 중대한 시국하에, 우리 2,400만 동포는 우리 반도가 병참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동시에 황국신민으로서 더욱이 공영권 지도자의 일원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능히 시국에 대처하고, 고도국방 국가정비와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대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반도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여 공헌하고 있는 이때, 일시동인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반도 통치에 임하는 고이소(小磯國昭) 총독 각하와 다나카(田中武雄) 정무총감 각하를 환영하는 것은 반도 동포들이 한결 같이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다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3회 중추원 회의에 즈음하여 다음의 자문사항의 취지에 기초하여 한 두 가지 제 소견을 답신하고자 합니다.

1. 의무교육의 실시

지난 (1943년) 5월 9일 조선징병제 시행을 결정하고 1944년도부터 실시한다는 취지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반도 통치상 획기적인 대전전이며 황국신민으로서 한없는 영광입니